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illegible]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社說 政變과財界의今後 —根本的基調는不變—

一

軍部對政黨의 對立은 及其他 議會의停會로부터 廣田內閣의 總辭職을 結果지어 後繼內閣의組閣大命이 宇垣大將에 降下하게 되엇는데 財界로서는 오히려 廣田內閣의 退却은 時期問題로보고 이以上의 存續에 期待를두지안헛든것만큼 同內閣의 退却을 歡迎하는 態度이엇든바 또한 大命이 宇垣大將에 降下하엿스므로 宇垣氏의 人物로보아 急激한改革은 하지안흘것이며 따라서 財界로서 馬場財政에 反對態度를 取하고잇든 所得稅綜合課稅以下의 諸項目도 自然 緩和되리라고 期待하야 同大將의 出馬에 全幅的支持를 보내고 一日이라도 速히 組閣을完了하야 政局이 安定되기를 苦待하고잇섯는데 陸軍部內의 宇垣氏에對한 反對態度로 組閣의 流產의 危機를 傳하게되여 事態는 반듯이 樂觀을 不許하게되엇다.

二

陸軍部內의 宇垣氏에對한 反對理由는 同氏가 現狀維持派에 屬하는 人物이라는것과 또한 二·二六事件以後 軍部가 모든 犧牲을拂하야 遂行해온 肅軍工作에 支障이 잇겟다는것인데 如何튼 軍部의 絶對反對態度에 對하야 宇垣氏또한 積極態度로 萬難을 排除코 組閣에 邁進할 決意라고 傳하므로 組閣工作은 兩者가 對立되어 持久戰이되엇섯인바 그러면 이組閣難은 무엇을 意味함일가? 吾人은 이것을 單純히 宇垣氏個人에 對한 反對라고 하기보다는 如何한 人物이 內閣을 組織한다든지 軍部側의 意向을 加味한 內閣, 即內閣組織上으로 軍部의 意見이 一層明瞭하게 採擇되어 軍部가 要望하는 國防國家完成을爲한 諸國策을 完全히 遂行할수잇는 强力內閣의 出現을 要望하고잇는 것이라고 볼수잇슬가한다. 이結果는 當然히 今後의 政局이 一層 팟쇼 乃至 右黨的色彩를띄게될것이므로 財界로서는 豫算의不成立, 增稅案의 自然延期나 또는 藏相의 椅子를잡을人物이나 또는 그財政政策의 如何를 問題삼는것以上으로 이問題를 重視하지안흘수 업슬것이다.

三

事實 如何한 內閣이 出現하고 藏相에 如何한人物이 拔擢되든지 現下의 時局에 잇서서 國防費를 中心으로한 尨大豫算은 不可避일것이며, 따라서 歲出豫算을爲하야 增稅와 公債增發이란 財政政策을 取하지안흘수는업슬것이므로 結局 前內閣의 政策을 大體로 踏襲할것은 明白한터이니 財界의 根本的基調에 큰變動이 업스리란것은 常識的으로도 알일이다. 即 豫算의 不成立은 前年度豫算의 踏襲과 追加豫算으로 實行될것이므로 多少의 減額이잇더라도 膨脹豫算임에는 틀림이업슬것이오, 增稅가 今年에 實施되지안는다 하더라도 一年의 延期일것이오 結局에잇서서는 施行될것이니 時期의 遲延은잇슬지라도 根本的 改變은 업슬것이 確實하다. 이 意味에서 財界는 大體로는 安堵하고 緊張한 氣色은 보이지안호나 今後의 政局이 一層 右翼的色彩를 濃化하게된다면 如何한 急激한 改革이 잇슬지도 모르며 따라서 增稅의 擴大等으로 一層前途가 不安할는지도 모른다는 意味에서 기피憂慮하고잇는 模樣이다.

四

이제 財界로서는 如何한 內閣이出現하든지 十四億에 達하는 軍事關係豫算을 施行함에의 影響을 重要視하고잇는것이니 昭和六年度의 三倍에 達하는 軍事豫算에 對하야 國內生產設備는 겨우 二割內外에 不過하므로 [illegible]化를爲한 輸入增大는 不免할것으로보아 輸入爲替管理强化까지 손을 대치게되엇는데 軍需關係品輸入을 自由롭게하는 結果는 其他의 生產品輸入에 支障을 生하야 產業發展이 阻害될것은 必然이라는 意味에서 이에 對한 當局의 操作의 萬全을 希望하고 잇는터인데 萬若 宇垣氏의 組閣이 流產된다면 그結果로 반듯이 팟쇼的 色彩를가진 人物이 登場하게될것이며 또는 宇垣氏가 組閣에 成功한다 하더라도 軍部의 要求一切를承諾치안코는 안될것이니 宇垣氏後政府의 進路는 거의 明白하게 내어다볼수 잇는것이니만큼 이러한 情勢에 對하야 財界는 今後의 根本的基調에는 變化가 업슬것을 是認하면서도 반듯이 悲觀할수는업다고 財界將來에 憂色을 기피숨기고 잇는것이다.

宇垣內閣流產必至
陸相候補者全部辭退
後任推薦할수업다는旨를正式回答
組閣本部回答內容發表

【東京電話同盟】寺內陸相은 二十六日 午後五時十分 三長官會議를 終了하고 同三十分 組閣本部에 宇垣大將과 會見하고 三長官會議의 結果에 基하야 陸相推薦에關한 正式回答을하엿다

【東京電話同盟】寺內陸相은 三長官會議의 結果를가지고 二十六日 午後五時四十二分 組閣本部에 宇垣大將을 訪問하고 前日大將으로부터 後任陸相推薦을 依賴바듬에對하야 候補者가 全部辭退함으로推薦할수업다는 旨를 述하고 正式回答을하얏다 따라서 宇垣內閣은 流產必至로 되게되엿다

陸相宇垣大將訪問

【東京急電話同盟】組閣本部發表 今井田淸德氏는 左와如한 談和를 發表하엿다 (寫眞 上 宇垣大將 下 寺內陸相)

周知하는바와가티 조곰前에 寺內陸相이 宇垣大將을 來訪하엿는데 昨日宇垣大將이 陸相을 訪問하고 懇談한 結果에 對하야 左와如한回答이 잇섯다

『陸軍當局에잇서서 三名의 後任陸相 候補者를 選定하야 就任을 交涉하엿는데 모도辭退하엿다는旨의 回答이잇섯다』

이回答을接하고宇垣大將은今後處置에對하야考慮中인데只今에잇서서무엇이라고決定치안헛다

米穀移動高

農林局發表=昨年十二月 米穀移動高는 左와 如하다(單位石)

一、米穀道外搬出數量

十二月分 六五三、〇五〇

十一月以降累計 一、二一七、六〇六

宇垣氏大命拜辭를 全軍一致로希望
建川氏宇垣大將會見

【東京電話同盟】建川美次中將은 二十六日午後三時四十分陸相官邸에 寺內陸相을 訪問하고 約二十分에亘하야 要談한後 同四時十分組閣本部에赴하야 宇垣大將과會見하고 協議를遂하엿다

【東京電話同盟】建川中將은 宇垣氏와會見後 左와如히말하엿다

余는 再昨日來 情勢를 집에서 듯고잇섯는데 알수업는點이 잇서 이대로 집에들어잇슬수도업다고 생각하고 이情勢를듯기爲하야 조곰前에陸相과會見하엿다 陸相의말에依하면 요즘의 空氣는 別個로하고 軍全體의 空氣는 宇垣氏가 總理에 就任한다는것은 憂慮할만한 事態를 惹起할 念慮가잇스므로 肅軍途中에잇는 此際 如斯한 狀態에 陷入한다는것은 진실로 寒心할바이라하고 全軍一致하야 拜辭를 希望하고잇다 이것이國家에 奉仕하는 所以라고 생각하기때문이다 이를듯고 余의 疑心도 풀리어 엇지이余의上官이엿든 宇垣氏에게 個人으로서 軍의堅固한 決心을 傳하고 이에依하야 善處를希望한것이다

宇垣大將依然 組閣을不斷念

【東京電話同盟】陸軍側의入閣拒絕에依하야 宇垣大將의 組閣工作은全然絕望視되여 流產이必至의狀態로 되엿스나 宇垣大將은 即時大命拜辭의 態度를 取하지 안코다시 今後方針에 對하야愼重히 考慮하면서 第二段第三段의策을 講究하고 또組閣을斷念치안코 如何튼 局面을 打開하고자苦慮하고잇다

人事·集會

▲徐椿氏(本社主筆)慶北地方에講演次 二十六日午後二時四十分京城驛發列車로南行

今日本紙朝刊 夕刊合十六面

宇垣大將聲明 "全力을다해善處"

【東京電話同盟】宇垣大將은어데까지던지 組閣을 完成할 方針으로 二十六日午後九時左와如히 聲明을發表하엿다

宇垣大將聲明 組閣의 進捗치안는것은 余가 진실로 遺憾으로 생각하는바이다 現在의 時局에 鑑하야 아직 微力을다하야 報國의 方法을 講究할 생각으로 余의 責務가 아닌가 생각함으로 愼重히 考慮한後 善處하고자생각한다

宇垣大將態度 今井田淸德氏談

【東京電話同盟】陸軍으로부터入閣拒絕回答을 接受하고 宇垣大將의 態度에對하야 今井田淸德氏는 左와如히 말하엿다

問 陸軍이 三名의 候補者를詮衡한데 對하야 모도 入閣을拒絕하엿다고하는데 他에 候補者가 잇는가

答 只今은 무엇이라고 말할수업다

問 寺內陸相의態度는 今後一切의交涉을 斷切하엿다고 하는가

答 그것은 말하지안는것이 조흘것이라고 생각한다

問 今後陸軍이 推擧하고자하는 三名의 候補者에 對하야 何等工作을 하는가 또 今後如何히 할것인가

答 今後의 問題에對하야는 愼重考慮中임으로 무엇이라고말할수업다

梅津次官參內

【東京電話同盟】梅津陸軍次官은 二十六日午後五時五十五分 急遽히 參內하엿다

【東京電話同盟】梅津陸軍次官은 二十六日午後五時五十五分急遽宮中에 參內하야 侍從武官長과 宇佐美侍從武官府에서 會見하고 陸軍三長官會議의 結果를 報告하고 執奏를 依賴하엿다

原田男園公訪問

【興津電話同盟】西園寺公秘書原田熊雄男은 二十六日午後七時半興津坐漁莊에 西園寺公을訪問하고 宇垣氏組閣에 對하야 陸軍이 後任陸相을 推薦치안키로 決定하고이를 宇垣氏에게 通告한 經過를 詳細報告하엿다

夕刊後市况 廿六日

◆朝取短期◆

	前引	高値	低値
朝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京短期◆

	前引	高値	低値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魯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魯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北鐵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拓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短期◆

	前引	高値	低値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淺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帝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魯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鋼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郵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短期 氣配◆

大新	八九五〇(不變)
鐘新	二三五五〇(不變)
日產	八二三〇(不變)
東新	一五〇九〇(不變)

◆橫濱 生系 後引◆ 當限 八七六〇〇 先限 八六六〇〇

◆福井 人絹 後引◆ 當限 八二二〇 先限 八〇六〇

000833

御歌會始의御儀

【東京電話同盟】新春吉例宮中御歌會始御儀는 二十六日午前十時부터 鳳凰間에서 平安의昔日을 想像하게하는 典雅한空氣裡에 莊嚴히 擧行되엿다

選者三條御歌所長、點者千葉胤明、同證馬[illegible]忠人 講師山縣有道公 特히陪聽의御吩咐를바든 林法相以下 十四名中에는 光榮의 女性六十二歲의 一宮氏夫人미사오女史도奉參하야 鳳凰間에 參進하엿다 午前十時 天皇陛下께압서는 陸軍通常 御禮裝을召하압시고 皇后陛下께압서는 로ー브몬탄트의 御姿로 高松宮同妃兩殿下 李鍝公妃殿下御屈從 松平宮相 百武侍從長以下를 거나리압시고 出御 玉座에 나압시엇다 如斯히하야 御儀는 光榮의 預選歌로부터 始作 講師冷泉伯의 端作에두니여 노래까지 朗詠한다음 大原伯의 發聲에 庭田 唐橋 藤波各其講頌이에 和하야 披講하고 選歌는 各回臣下가 終了하면 皇族殿下께서 御歌를一回 皇后 皇太后兩陛下御歌를 奉講하기 三回 이것으로 最後에 冷泉講師『年初에 田家雪이라고 읽으압신 大御題』를 朗朗端作의 餘韻이 不絕하는中 御製를 奉誦 大原伯의 發聲으로 講頌等 御題를 밧들어 和唱하압고 五回의 御儀는 玆에 慶賀하압게 終了되엿다 兩陛下께압서는 十一時半頃 天機御麗하압시게 入御하압시엿다

三條御歌所所長謹話

【東京電話同盟】今日午前十時兩陛下出御 鳳凰間에서 新年御歌會始의 御儀가 擧行하게되엿는데 約一時間半에亘하야 例의 御歌會始의御儀가 擧行되엿다 講師、發聲、講頌等諸役이 單獨으로 合聲에 音吐朗朗히 緩急抑揚잇는 聲調로써 披講하는 詠進和歌를 御感懷기피 天聽하사 御製를 最後로 披講을 終了하매 天機極히 御麗하압시게 入御하압시사 慶賀스럽게 御儀를終了하시엿다 一同感激不堪하야 御製를 拜하엿다 御前에잇서 披講으로된 御歌는 高松宮同妃兩殿下、李鍵公妃殿下를 비롯하야 臣下로서는 諸內大臣宮內大臣、選者以下의 諸大官의것과 預選者의것이 잇섯다 一般詠進數는 四萬一千餘首인데 그中預選의光榮을입은것은 七人이다 府縣順에따라 披講하야 上聞에達한것은 例年과갓다 이預選數는 別로制限이 잇는것이 아니오 昭和三年에는 八首、同六年에는 六首、他는五首式이다 今回는例年에比하야 만헛스나 이는御題에依한것이다

아라비아海 一週續航記 ⑪
歐洲가는길에
白麟濟

엇지어떤이라 다시 車를놀려 山路를取하야 半島與山을 山腹까지 올랑 다시 紹曉數百丈의 幽峽으로돌랏던 鐵鋼한 山路를넘으니 四方이 例의 石灰石層岩으로된 禿嶽으로둘러싸인 砂原이 眼下에 展開되는데 一覽所感이 서울서보던 뎃드리히가나 오는모나코風景에서보던 畫面과恰似한 一洞窟이다 洞心에約千으로算할 淡湖에 빗나는比較的整然히 配列된色彩明朗한 建築으로 成衛한 一大都市가잇스니 이것이 아덴市이다 여기行政廳 裁判所監獄學校敎會其他住宅街等英人의 華麗하잇고 支那街에恰似한 아라비아人店舖도잇다 衆人의婦女가 五色찬란한衣布로 얼골을싸고 往來하는것이 異風으로눈에띄인다 이곳을徐行貫通하야 市一隅인 峽谷에到達하니 有名한 貯水池와 博物館이잇다 빗산入場料를 別納하고參觀할수가잇섯다 案內黑人을따라 欄內로드러가 層岩峽谷으로 드러서니 岩壁으로 둘려쌔인 峽谷을 『쿵크리트』로 가로막고 『쿵크리트』로서 울셈들엇시 둘려막고 길이 數十丈 內容數千平方尺에 이르는 宏大한 貯水槽를 山谷을따라 올라가며 層層히 만드러노흔 大小五個所의 空槽으로 되엿는데 놀라지마라 一滴水도 볼수가업다 黑人의 서투른 英語說明이 끗나매 反復說明하는말이 『年쩨한번도 비가아니와서 물이 아니고엿다하며 비만오면 近山谷谷에 떠러지는물방울이 모다 이랑크에 모인다한다 只今市內와 港口에서는『아라비아』奧地에올울鐵管으로 끄러대고잇는다 이라한다 貯水槽途中에 一古井이잇서 土人이 돌을드려떠러치니 數三秒後에 落水되는소리가들라는것을 意味잇는態度로 하여보이더니 돈을달라고 손을내어민다 飮水、우물、이얼마나 貴하고 드믄것임은 深刻히알바이며 이英人의 廣域絕土에 칭으로와서 不撓不屈의 天性을 發揮하야 大自然에까지 抗拒하라고 애쓰는 風景形勢를볼때 眞로 短氣不勇하고 萬事에 慣熟하는 習性이 업지아니한 우리네로 배울바크고 기픔을 切感하얏다 歸路에 陰獄絕頂에 處處에 煉瓦藥城이잇슴을보고 運轉手에게 무엇이가를 무르니 曾往英人이 防禦目的으로싸은 城塞인것을 대답하며 只今엔 사람이 업는空家라하더라 午後三時出帆까지의 時間을 船側에 成群集來하는 小舟를 試하며 濟內에 盛飛하는 갈매기를 바라보니 意外에 異域奇海에서 太公望을 맛보는 形態를 이루엇스나 오늘본『아덴』에서의 印象이 너머나 人類의 刻苦的生存意識이 深刻하엿던 탓이지 도모지 東洋的太公望의 詩興이 敢不生心이엿다

이로써 이紀行을 맛추자 日本郵船會社의 歐洲航路乘客의 船中生活도 이여서 大綱을 말하다 그러나 처으로 豪華한 巨船遠航을하는 시골뜩이 눈에 빗친것을 그대로쓴것이니 더러노코 萬事가 잘만보이고 조케만 알앗다고 넘어짐을 免치못할듯하다 그러나 船長의 談話에 依하면 近者에 獨逸優秀船三隻이 巨容快速으로 이航路에 實現하야 郵船의 容易치안은 競爭航路가 되얏다하며 이번本船航行을 바로 神戶서 하로떠러저 出帆한 二十一노트의 快速과 二萬돈에갓가운巨船인 그나우제나우란 獨逸船때문에 乘客과貨物을 만이빼앗겻다하며 果然只今아덴을떠난 本船一等客이 不過內外人合하야 十數人에不過하는 閑寂한狀態이다 多幸히 우리乘客은 巨船을 獨占한 모양으로 가즌 援待를 바다가며 넓으나넓은 公室과設備를 맘대로써가며 지나게되얏스니 會社엔 아플일이나 우리에겐 僥幸이다 『스웨쓰運河』一往復通過料金만이 이배의 噸數로十萬圓이라니 손님적은 항부를 繼續하기 어려워 會社로아플은 當然할일이며 獨逸船과 過度한 競爭이 비쓰第一主義가어대서 나오는지도 질작하엿죽하다

一九三六、十二月三六日夜 紅海入口(俗稱)를고지'비별만덴海峽'을 지나면서

三十日國會에서 히總統重大宣言
佛首相及英外相演說에應酬
宣傳相國民에게發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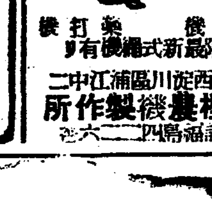
【伯林二十六日發同盟】오래동안 바바리아 알프스山莊에 蟄居하면서 國際情勢의 推移를靜觀하고잇든 히틀러總統은 二十四日伯林에 歸還하야 總統官邸에 入하엿는데 羅馬에서 歸還한 괴링空相과 會見하고 다시外相노이라트男、國防軍 나치스黨首腦部等을 招致하고 重要協議를遂하엿다 協議結果 來三十日午後一時를期하야 크롤오페라하우스에 國會를召集하고 重大外交政策을 宣明하기로 決定하엿는데 右席上에서 히틀러總統은 블룸佛首相、이든英外相의外交演說에 應酬하야 獨逸政府는 政治的代價에잇서서 外國의援助를仰할意思가업다는旨를 强調하리라고 觀測된다 그리고 나치스親衛隊의 消息에依하면 獨逸政府는 極秘裡에 葡萄牙政府와의間에 葡領앙골라地方을九十九年間租借하는契約을締結하고 히틀러總統은 卅日 外交演說에잇서서 以上의協定을發表하지안흘가 豫想된다 그리고 同日午後一時부터는 總統官邸에서 閣議를開하고 全權委任期限延長案及行政區劃改正案을審議하리라고 傳해지는데 行政區劃改正案은 中央集權의 强化를眼目으로 現行州制度를 廢止하고 言語風習을 基礎로 全國을 郡(가우)으로 區劃하기를 意圖하리라고 傳한다 괴벨스宣傳相은 二十五日全國民에게 國會召集에 對하야 左와如히 發表하엿다

一月三十日 國民革命의 國民的祝日에 當하야 午後一時부터 國會를 開催할 히틀러總統으로부터 宣言을 發表할터인데 總統의 말은 獨逸國民의 말이다 全國民은 라디오를 通하야 直接總統의 말을 聽取할수잇도록하고 同日은各戶에 國旗를 揭揚하라

(寫眞은 히틀러總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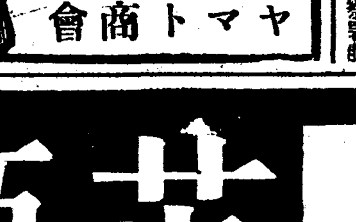
圍碁 五段山口賞[illegible] 通信敎授ニテ必ズ上達 內容見本送呈ス 大阪天王寺[illegible]

朝鮮向漁網全般 國旗印綿 [illegible] 漁業用具製造卸直賣 大阪市[illegible]五丁目 成尾商店 電話土佐堀二〇四一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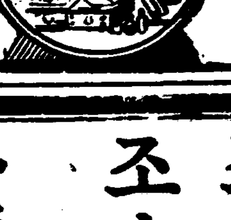

特許實用新案登錄數件有 紹扱機 毛切附最新式繩機有り 藥打機 大阪西淀川區浦江中二 石槿農機製作所 電話福島四二二六

卸 特製 萬年筆カタログ進呈 大阪市南區日本橋北詰 萬年筆製造卸 田中營業所 電話南一七七六番 振替大阪三〇四四番

食料玩具 小物玩具 卸問屋 大阪市東區淸水谷西之町 筑紫屋商店 [illegible]

空氣銃

少年用及高級品 二圓以上卅圓以內各種 大阪市西區江戶堀 ヤマト商會

製造の軍手 昭和十一年式 大發明特許 カガリ無シ 軍手製造機械 [illegible]

印刷物經濟化!

太陽商會 大阪市日本橋四丁目 [illegible]

專賣特許 藥用구레ー무

井上英語
一月一圓廿錢·英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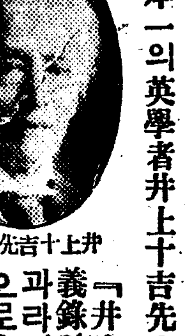
조흔해에 조흔決心 今年에도自宅獨習으로!!

世界의言語 立身의武器 英語는 完全히 내것을만듭시다!!

井上英語吹込者 도ー마스敎授

オリムピック決定の一九三六年 英語の必要を感ずること痛切!!

昭和十二年은躍進朝鮮의 一段好況을것는해 지금이『英語』를배홀絕好한機會다 英語만은 이에近代人의常識으로 不可缺한것이며中學以上學校에는가장重要한學科의하나이다 이제英語를모르는사람은立身의 第一資格을갓지못한사람이다!! 日本一의英學者井上十吉先生이쓰신『井上英語講義錄』알기쉬움과라디오放送으로大好評인 도ー마스[illegible]


井上十吉先生

材料價奔騰餘波는 府土木事業에도

當初計畫을縮小方針

…가 폭등하엿스므로 말미암아 경성부의 제반 시설공사에도 예산이 맞지안케되엿다 경성부에서 소화 십이년도에 실시할 토목공사비(土木工事費)와 영선비(營繕費)는 대략 륙백만원가량의 예산으로 계획을 세우고잇는데 건축재료(建築材料)는 사할가량 폭등하엿슴으로 이미 정해노흔 예산으로는 도저히 순조로 진행하여갈수 업게되엿다

그래서 경성부당국에서는 그 대책을 강구한결과 사업을 축소 시키거나 예산을 수정추가(修正追加)할수박게 별도리가업게되는데 예산을 수정추가한다는것은 곤난함으로 하는수업시 전면적으로 제반계획공사를 축소하야 도로포장(鋪裝)공사라든지 하수개수(下水改修) 등 기타 예정공사가운데서 가장 급히해야할것은 먼저착수하도록하고 좀연기하여도 참을수잇는것은 한동안 연기보류할 방침이라한다

悲運의末蔭學校에 三萬圓土地寄附

淸津初有의義擧에一般은感激

姜仁伯氏夫婦의篤志

【淸津】 지난 이십일 청진부수남동(水南洞) 강인백(姜仁伯)(六○)씨와 그부인 최옥선(崔玉善)(○○)녀사는 시가삼만이천원의소유토지를 동리 말음학교(末蔭學校)에 제공하야 비운에 빠저잇는 동교를 크다란 반석우에올려노흔 반가운 소식이 잇다 강씨는 원래 수남동의 원로로서 지금으로부터 오년전에 유지를 모아가지고 교육사업의 필요를 력설하야 동리에 말음학교를 창설하고 유지제씨의 후원으로 지금까지 동교의 발전에 다대한 공헌이 잇서왓다

현재 동교는 사년제도 사학급에 이백륙십명의 아동과 네명의 교원을가지고 교육기관(敎育機關)에 빠진 청진에 업지못할 귀중한 존재이다 이 비약한 긔관으로 는 날로 팽창해가는 교육 렬에 대처할수 업스니 동교의 고민이 날로커가고 잇섯다 이에강씨는 그소유로 수남동에잇는 일천삼백평 시가이만여원의 토지와 그부인 최씨의소유인 경성군 룡성면(鏡城郡龍城面) 토지 삼천사백평 시가일만이천원의 토지를 자발적으로 제공하게 되엿다 기지매수(基地買收) 교사신축(校舍新築) 사립보통학교 승격(私立普通學校昇格)등의문제를가지고 악전고투하는 이학교에는 강씨부부 두분의 특지로 소생의서광을 밧게되여 압으로 크게발전할것을 맛고 일반의 칭송과 기대가자못큰바잇서 사학(私學)계에일대충동을 주고잇다

(사진은강씨와최씨)

돈한푼도못빼슨 서투른强盜兩名

五年役과四年役求刑

돈한푼도 못뺏고 엄끼에칼로 처만 내이고 강도치상(强盜致傷)죄로 법정에선 서투른강도 두명 경기도양평군지제면 망미리(楊平郡砥堤面望美里) 박장순(朴長順)(二○)과 가튼면대평리(大坪里)리만성(李萬成)(二七)과는 작년삼월 이십삼일오전네시쯤하야 강도할목적으로 서로짜고 대경리 강순봉(姜淳鳳)의 집에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발소리에 잠깬 강순봉의 안해 리경연(李京淵)을 협박하고 돈잇는곳을 찻다가강순봉이가 마저 잠을깨매 박장순은 놀래여 강순봉의 외인편다리를 가젓든칼로찔러 약이주일이상 치료할상처를 내이고 아모것도 훔치지 못하고 도망한죄로경찰에 걸거취조를받는다음 강도치상 주거침입죄로 통과되여왓든바 이십륙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산하(山下)재판장주심 깃(金)검사관여 미테 공판이열렷는데 검사는 박장순에게는 오년징역을 리만성에게는 사년징역을 각각구형하엿다 언도는 오는이월이일에 내리기로되엿다

江西의某種事件

漸次擴大·靑年十數名도檢擧

【平壤】 강서고등계에서는 어떤 단서를어더가지고 고등계가등(加藤)주임은 리형사를 대동하고 작년말과 금년초생에걸처 평양에 출장하야 평양서원의후원을 바더가지고 평양부선교리(平壤府船橋里)에서 박×룡을위시하야 청년수명을 검거하야가지고 이래주야로 극비밀리에취조를 계속중인데 고등계에서는 극비밀에부치여 상세히알수는업스나 탐문한바에의하면 전기박은 일족이 남경(南京)군관학교(軍官學校)를 졸업하고 평양에와서 ××단의동지를 모집하는 동시에 운동자금을 엇고저 비상한 활동을 하고잇섯다 한다 그러다가 이번에 검거되야 취조를 밧고잇는 모양인데 취조에따라 그의동지인 모씨를 간도에서 검거하여왓고 또 일본경도(京都)에서도 엄모(嚴某)를 압래하야오는등 사건은 점차확대되는 모양인데 지난 이십일일에는 강서군 증산면 정양리(江西郡甑山面正陽里)에서 청년십수명을 검거하야 방금취조를 계속중인데 아프로 더욱사건은 커질모양이다

貨物自動車에 衝突重傷入院

이십륙일 오후여덟시 오분경 시내 돈의정(敦義町)일백사십오번지 명월관(明月館)분관 아페서 서대문(西大門)이정목일번지 조선국자회사(朝鮮麴子會社)화물자동차운전수 리중희(李重熙)(二○)이가 자동차를 빼하려다가 ,부렉이 갑작스럽게 고장이 나서 마침 그겨례서고 잇든 채부정(彩府町)일백륙십이번지의 일꾼 김경득(金景得)(二○)과 부딋처서 오른편 다리에 약일주일가량치료를 요할상처를 입히고 피해자는 곳관수정(觀水町) 대중병원(大衆病院)에가서 응급치료를 밧는중이다

咸北米實收高

二十二萬餘石

【咸興】 소화십일년도 함경북도 미실수확수(米實收穫數)가 함북도청에서 발표되얏다 총수확이 이십이만일백팔십륙석으로 작년의 이십일만오천삼백칠십팔석에 비하면 사만일천이백십오석의 격증으로 그증가률이 이할삼분에 해당한다 이로서 함북에도 변변히 경작지가 늘어가며 동시에 농사방법이 진보된다는것을 말함이라한다

故土銀盤을찻는 錚錚·九名勇士

—競技는模範競技로紅白戰—

평권軍 廿八日朝京城着

우리빙상경기계에 획기적신기원을 지을 동경평권구락부 초빙빙상경기대회는 본사주최와백구할빙구락부 후원아래 오는이십구일 정오부터 청량리역전링크에서 장쾌한막을열게되엿다 국제적무대에서 이미젊은조선의기염을 마창으로토한 빙상의용사들이 그리운 향토의 은반을차저온다는 래보가 본지상에 보도되자 마천하 빙상경기 동호자들은 흥분이요 일반스포-츠팬들의 기대와 흥미는 비상히 놉하저잇다 이번 래방하는 김정연(金正淵)、리성덕(李聖德)、장우식(張祐植)삼선수는 여기에 구구히소개를 필요치안으리만치 빙상경기를통하야 우리와세계와의 스포-츠인연을 매즌것으로 너머도 유명하다 지난이십오일 취방호(諏訪湖)에서 열린 전일본빙상대회에서 김정연군과장우식군을누르고 가를부른 최용진군이도 한오랫만에 향토의링크에서 묘기를발휘하게 되엿다 그밧게 평권의 멤버-로서 꾸준한 진경을 보이고잇는 안용희(安龍熙) 윤세식(尹世植) 김창윤(金昌允) 박호준(朴浩俊) 군등 아홉 용사가 대망의 화형모범 경기회에 참전케 되엿다 조선안에잇는 선수들도 만흔 감격에 이대회에 참가하야 대항하기에는 실력에차이가 심하야 대항선의 흥미는 덜가심으로 경성의 일류선수를망라하야 홍백전(紅白戰)을 거행하기로되엿다 재류군일행은 이십팔일오전여덟시 경성역착열차로 입경하야 이십구일정오부터 경기회에 출전케되엿다 경기회에만 끄치지안코 당일 일반선수들에게 빙상경기에 대한 리론과 실제를지도할터입으로 「홍-」과 활주법에는 이날서슴지말고 경기장에서 볼뿐속에 신청하기를 바란다

(사진은 연습중의 평권군)

未曾有의土木費로 扳本塞源大工事

五個年에一二百五十餘河川改修

釜山、麗水兩港도改築

금년도토목사업은 실로 미증유의 대예산을 계상하야 착착실행할 방침이라는데 [주요한것은 직할하천과 중소하천의개수인바 이것은 작년칠월 남조선일대를 참담케한 대수재에 징한 자국을 바더 발본색원적으로 방어할 계획인데 그개수할 하천수는 직할하천과 중소하천을 합하야 이백오십삼개로 총예산은 실로 구천륙백여만원인데 오개년의 단기간에준설할 예정이며 그다음부산항(釜山港)과 려수항(麗水港)등에도 다액의 수축비가 계상될터인데 그중부산항은 그총공비가 실로 이천만원 려수항은 구백사십만원에 달할터이며 이밧게 국방도로와 재해복구기타에 관하야서도 상당한거액의 예산을 계상할모양인데 이에따라서 토목직원도다수를충원할모양이라한다

大工事를압두고 三日동안協議會

總督府土木課에서

별항과가티 금년도 토목사업은 실로미증유의 대예산으로 집행하게됨으로 이것을 연구협의하기위하야 총독부토목과에서는 이십오일부터 총독부 제이회의실에서 삼일간협의회를 개최하게되엿다

咸北一帶에 積雪尺餘

交通杜絶도續出

【淸津】 지난이십사일 새벽부터 나리기 시작한 눈은 이날온종일 나리게되야 관북 전지에는 작년이래 처음보는 대강설을보게되엿다 평야부로 나린눈이 넉넉 한자나싸이고 산간에는 한자이상부자에 갓가운 눈이싸여 이때문에 산간의 교통은 대부분 두절되고 청진나진간(淸津羅津間)의 자동차선로는 부득이 운전을 중지하얏다 이십일에 이르러 동선로는 겨우 조심스럽게 개통운전을 보게되얏다 아즉산간지대의 소식이 들리지안흐나 이번눈의피해도 상당히 나타나리라한다

安東消防署長殉職

署員六名도重輕傷

【安東二十六日發同盟】 이십륙일 오전네시오십분경 안동현흥인가삼호경흥잔(安東縣興仁街三號慶興棧) 양성업(揚成業)의 집에서 불이나서 이동상호를 전소하고 동다섯시반경에진화하엿다 그런데 이맹렬을 무릅쓰고 불끄기에 활동하든 안동소방서장 곡홍기(曲洪祺)(五○)씨외 여섯명의 일단은 갑작이무너지는 천정미테깔려서 중경상자가생겻고 곡서장은 얼마안잇다가 사망하엿다

八十老人自殺

生活苦를悲觀코

【鎭南浦】 팔십로인이 세상을비관하고 음독자살한 참극 -진남포비석리이백사구번지 림유식(林有植)(八○)은 지난이십일일 오후여섯시경 자기집에서 다량의 양잿물을 마시고 고민하는것을 집안사람이 발견하고 도립진남포의원에 입원치료하엿스나 즉시절명하엿다는바 원인은생활이 극도로 곤난하여여년이 남지안흔 여생이나마 살어잇슬마음이 업서서한만흔 세상을 저주한것이라고한다

돈벼락마질古物商

내어버린物件이"노다지"로될줄이야

內閣이갈려도頑强히昂騰

古物商篇 ⑥

요사이처럼 물까가 벗석벗석 올라서야 어디살수가잇나 먹을것으로 입을것으로 무엇무엇할것업시 아츰부터 잠잘때까지 때로는 꿈속에서도 물까폭등의위협을 밧고 몹서리치게 되엿스니 이것을 엇더케하란말인가 하는 한심한소리는 누구나어서 하는소리요 듯는소리다 이상점 저상점 이공장 저공장 문압헤는 "금반 원료 폭등으로 종래가격보담 상할인상(引上)합니다 오할인상합니다" 또는 "그날그날의시세대로팝니다" 하는 돌긴시세를알린다는 광고가 새로운장식비슷이 허여케 붓터잇는터이다 이리하야 대중의경제생활은 정면으로 할것업시 팔방으로 물까폭등의 공격을밧고 사람의갑은 오르지안으니 일반대중이 로동군 할것업시 월급쟁이 할것업시 쪼크리고 벌벌떨고잇는것도 당연한일이다 웨 이러케 빗싸지는거요 그야 원료갑이 오르니 자연소매시세도 오르지요 하는것은 점원의요사이 새로배운 버릇이 되고잇다 철갑이 오할오른다 고무갑이 상할 오른다 석탄 갑이 오십전오른다 면사포지세가 이삼원오른다 사람갑이 오른다 이러케 원료갑이 오르니 자연소매가격도 올르지안흘수업다

그러면 웨 원료가격이 폭등하는가 한마듸로 말하면 일본경제의 동향(動向)은 방금 준전시경제체제(準戰時經濟體制)의 제약아래에 움직이고잇다 무조약시대(無條約時代)와 밋칠듯한 세계각나라의 군비확장경쟁(軍備擴張競爭)을 배경삼고 백억의 적자공채(赤字公債)와 내각이 밧귀우는통에 아즉 의회는 통과되지안헛시마는 삼십억의 대예산과 그로말미암은 증세와 관세인상(關稅引上)은 모조리 군수산업(軍需産業)을 에워싸고 가위 군수(軍需)의 「인프레」의 선풍을 쓸고 군수산업의 생산력을 명령하고잇다 총 칼 군함 탄약등의 무기의주문이 뒤를이어 밀려들어 한때는 내여도 주어갈사람조차 업든 이와가튼 회사의 주(株)가 지금은 내세상을 자랑하고잇다고한다 총을 만들여면 첫재로 철이잇서야하고 폭탄을 만들여면 고무가잇서야한다 가죽(皮革)이든다 석탄이든다 원래 일본이란 광물(鑛物)의 자연적혜택을 밧지못하고 모다 남의물건으로 제살림을 하고잇는 형편이다 이러고보니 이러한 원료는 모다 외국에서 사드려야한다 그러나 외국도 일본과가티 각나라가 모다 싸홈할 준비를하고 잇스니 원료를 잘 팔려고하지안는다 고잇다 그우에다가 일본에서는 수일전부터 무역관리(貿易管理)를 일층엄중히 하게되여 위체시세가 점점불리하게 되여서 도저히 외국에서 다수히 사드릴수가업스며 또외국에서도 잘 팔려고하지안는다 이러고보니 원료난(原料難)은 일층 심하게되고 따라서 쓸데는 만흔데 물건은 적고하니 원료갑이오르지 안흘수업다 돈갑이작구떠러지고 물가가 그대신 작구 올라가는판에 이모양이니 물가가 전정모르고 오를밧게업다 이리하야 주생산비가 오르니 자연소매갑도 오르고 따라서 금년의 모든물가는 작년을 표준으로하야 그에따라서 오르기도 하고 나리기도 할것이라고 하는것이다

비근한 례이지만 쇠덩이하나 살려고하여도 작년이때보담 일할이상 오르고잇지안는가 구두갑 고무신갑도 오르지 안엇는가 이러케되자 전일 신문에도 낫지마는 엿장사 고물상사들도 이통에 한목보고잇는것이다 더럽고 메물가리 생각하고 내여던지든 헌고무신 주철 헌겁가튼것이 상사람 오르고 내세상을 보이고잇는것이다 그러나 광전내각(廣田內閣)이 이번 총사직하엿스니 다소 물가도 떠러지지안흘가 하지만 총사직하는날의 주식시장(株式市場)을 보면 전연변동이 업슨것은아니지만은 대체로보아그전이런때보담 훨신 평온한상태를보이고잇지안흔가 도로혀 오르는것조차 잇다 이것은 일본의 물가는 누구가 총리대신을하든지 지금형편으로는 전에말한원인으로 오를수밧게 업다는것을 말하고잇는것이다 좌우간 일반물까폭등의원동력인 원료갑의 폭등은 일반소비대중이야 엇더케되든지 계속하야오를것이다

(사진은 고물상)

舊年末特別警戒

廿六日밤市內各署一齊히

…말만되면 이중과세 하지말고 양력과 … 일반으로음 …이 만허서 음 …에서 는 구년말대매출을 시작하면은 행음력설을 압둔 금융기관에는 금전출납이 빈번하고 거리거리에는 사람들의 래왕이 복잡하여저서 참으로 년말기분이 농후함으로 경기도 경찰부에서는 년말에 흔히따러되는 강절도사건의 발생을 예방코저 구년말특별경계를 실시키로되야 부내각서에서는 이십륙일밤부터 경기도 경찰부 지시미테 제일회 특별경계를 실시하엿다

副業에 軍手の製造

큰利益을바라지안코確實한收入을어더 一家生活의安定을만들려하는분에게 軍手의製造業을奬勵한다

特長

第壹 僅少한資本으로着手할수잇다

第貳 製造方法은便히簡單하야女子나아해나二三日의講習으로充分하다

第參 販路가大端히넓다

第四 完成된製品은本所에서引受한다

第五 如何한山間僻地에서라도製造함에不便이업다

昨今軍手의大需要期에드러製品大不足인때에一般이開始함에는絶好한機會이다

目下有利한條件으로直營製造家 集中 중

지금곳申込하는분에게는卽時製造方法을無料로가르치고綿絲는供給한다

○左記近處의營業所로葉書로照會하시오

軍手製造의栞 無料로送呈함

全國購買組合…合會御用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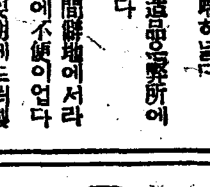
株式會社和信連鎖店指定商

合名會社 朝日軍手製造所

大阪市旭區野江町一丁目京街道

東京市本鄕區元町貳丁目三ノ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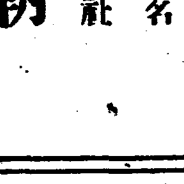
京城府黃金町五丁目 郵便局前



매독에 프로다루큐리 가제일

남녀 각급성림질 부인의백대하 중 남녀냉병 오줌소태 ... 고르지못한데 하야보고 ... 효력 확실 강력 상 가 병독 나고 보 안전 복용 ...

[illegible]



매독은선천후천 두가지로 ... 세상에일무섭고 지독한 병이다 ...

약을써보시고 만일 무효면 어더한 책임이든지 집니다

發賣元 京城府西大門町車停留場前 五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電話光化門三一二四番·振替京城一九九五

桃花劇場 麻浦桃花町 電話龍山一三三番

大週 二十九日부터 暗黑街全滅 世界의王者 天國 海賊부르타 ...

一月二十七日부터 劇團 靑春座公演第五週

悲劇 「흘너간鳳女」 四幕 朴英鎬 作

喜劇 「오-! 너의일흠은 女子니라」 一幕 南宮春 作

東洋劇場

二十八日부터 晝夜 三回

獨逸ウフア超特作 ウイリフリツチ ケーテ·ゴールド主演 ▲紅天 ...

P·C·L 日活合同作 小林重四郎、竹久千惠子、深水藤子、瀨川路三郎 ▲花火の街

東日、大每 國際ニュース

パラマウント 日本語版ニュース

最新式 大人五〇 學生小人三〇

ワカケキ

效力斷然第一

人生의再逢春

●嚴冬雪寒이라도 日光照明과 煖房裝置를適當히 하면 서리맛고 시드러말라진草木도靑々한줄기와 紅花綠葉의滿發을 볼수잇스며

●사람도 全身이 虛弱하야 精力이마르고 氣血이 枯渴되고、筋骨無力、早老、陽氣無能、神經衰弱、胃腸衰弱、肺病等의모든 虛弱症勢로 거이廢人이된사람이라도、百補丸洗禮를바드면、모든虛弱症勢가 一掃되고、血、肉、骨、精이 生々復活되며、更生의紅花綠葉가치 意氣洋々한 人生의再逢春을 맛게됩니다

●新年새해에 第一먼저 이러케조흔 百補丸을 쓰시면 活氣洋々한몸으로 今年의모든 事業도 全部大成功이됨니다

日本政府特許局登錄 第二八二二八號

神人道師 葛玄眞人의秘方藥

百補丸

補陰補陽補腎·補肺補心·補腦補脾補胃·補全身百補·不老更少年仙藥

[illegible]回春壯陽強精[illegible]健康長壽劑

最高의名藥이기때문에
最大의賞讚을밧는다

漢方醫藥界의最高權威시요 李王職大官의位의健康을擔任하고게신 現李王職典醫 洪在暲先生께서는 누구보다도百補丸의效力과眞價를잘아심으로도 同胞에게만히推奬하시며 이와가티 古今東西最良劑라고 칭찬하심니다

葛玄眞人百補丸
古今東西最良劑
李王職典醫 洪在暲

萬金不換의此事實

보시요! 朝鮮의貴族、兩班、大臣을비롯하야各界朝野名士의 最大賞讚 愛用推奬을밧는補藥은事實 百補丸뿐입니다

▲돈잇고 地位잇는 貴族名士의 推奬文과賞讚은絕對로 千金萬金으로 살수업는것이事實입니다

▲돈보다도 名譽와 地位가 그분들의生命이며무엇보다 第一尊重하고 貴한것입니다 이러한분들이 一個 會社의貪利를爲하야 私情과돈에팔니여特效가無하고 高名치안흔藥을거짓賞讚과推奬文을쓸理는 絕對萬無합니다

▲오즉 百補丸의 卓越한效力이 眞로國民健康上에 必要하다고 認定되엿기때문에 이러케貴族名士諸氏께서이가치 最大한 推奬文을眞實한마음으로 써주시게된것입니다

▲이것이 補藥界의 大王으로 君臨한最大의效力을 가진 百補丸이아니면 어들수업는最大의榮光이며 最大名譽입니다

▲그럼으로 百補丸의 效力은 只今다시 區々한 說明을할必要가 업사오니 廣告보다 實際事實을 밋고쓰시요

▲世上에는 別別虛無誇大한廣告도다만흐나事實百補丸과가치 效力조흔藥은다시업습니다

人生의再逢春은百補丸으로!

身體虛弱이 過度하여지면 後悔莫及이요·百補丸一劑 못쓰면平生의 恨이됨니다
健康長壽·富貴榮華·所願成就가 모다 爲始健康이니곳 百補丸을쓰시요

百補丸의效力은이러케광장합니다

一、氣血이俱虛하야 貧血이되고 形容이창백하고 全身이虛弱한분
一、性慾이줄고 手足과下초가恒常濕冷하고肢節腰痛으로고생하는분
一、口味업고 消化不良과 체증、속병、등으로고생하는분
一、肺가不足하고 元氣와活氣가업고 허리가압흐고 四肢가勞困한분
一、神經이衰弱하야 머리가묵업고 精神이흐리고 記憶力이不足한분은 早老할症狀이요 長壽못할前兆이오니 一日速히 百補丸을服用하여 씩씩한 靑春이되시요
一、筋骨이튼튼하여지고 氣血이旺盛하여지고 힘이생기고順借力이됨
一、消化不良 체증 속병 가튼것은 어느때 업서젓는지 알지도못하게업서집니다
一、눈이발가지고 精神이조와지고 皮膚가윤택하고血色이조와집니다
一、全身五장六부를 다잘補하야 참날 完全히 陰陽雙補하야 體重이增加되고 陽氣가 大壯됩니다
一、過歡過色人 ホルモン不足으로因한 腦、性神經衰弱人께는 더욱速效합니다
一、長久連服하면 精力絕倫하야 一生을 無病健康한몸으로 不老長壽할수잇습니다
一、年久咳嗽와 오랜淋疾도 消湯됨니다
一、男女老少를勿論하고 弱한분에게는 第一입니다

藥價 一劑 特價 貳拾圓 重用 拾圓
無料進呈 三劑以上 共同注文周旋하시면 周旋人께 一劑無料進呈

藥注文送金은 左記三處中便宜한口座에
一、振替京城五番
二、朝鮮銀行本店內平和堂
三、商業銀行本店內平和堂

重要販賣所

一、本社直賣部
二、朝鮮總督府商工奬勵館
三、全朝鮮十三道廳商工奬勵館及商品陳列所
四、京城驛

全國優良藥店에限하야特約販賣店募集中

000835

堂堂第一·속일수업는事實

藥業界有史以來百補丸이 最高賣上記錄!

그原因은效力斷然第一인까닭!

京城四大郵便局의發送數字가證明

●朝鮮에서 過去數十年間 여러가지 新舊補藥이 出하야 各處에서 큰廣告도 만히한 일이잇지만은 그賣上高에잇서서는 百補丸이 斷然! 朝鮮藥業界有史以來 最高賣上의 超記錄을내고잇습니다。이것은 京城四大郵便局의 發送數字가 事實을 證明하는바이니 疑心할수업고 속이려야 속일수업는 堂々한事實입니다。

●百補丸이 이러케 비빨치듯 大大的歡迎을밧는 理由는 무엇보다도 第一 效力이卓越하고 第一信用이 큰까닭 입니다。

●그러므로 百補丸은 貴族、兩班을爲始하야 京鄕各界 朝野名士諸氏의 最大賞讚과 推奬愛用을밧는바이며、萬人이 다투어服用하고 서로 激讚 感謝 하는바입니다。

●世上에서 廣告는 누구든지 마음대로 크게낼수가잇지마는、그卓越한藥效에對하여는 洋의東西와 學博士를勿論하고 누구나 마음대로 絕對的할수업는것입니다。百補丸이 朝鮮에서 第一만히팔니고、第一信用만코、最大의 歡迎과 最高의推奬을밧는것은 오즉 百補丸이 補藥界에서 有史以來에 그效力이 가장偉大한까닭이며、廣告가 큰까닭이아닙니다。

●百補丸은 이와가티 效力으로나、信用으로나、賣上으로나、무엇으로나 斷然補藥界에 堂々第一인것이속일수업는 事實로서 確定되엿스니 이제비로소服藥家의疑心은 一掃되엿습니다

服藥家疑心一掃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京城府堅志町五) (前中央日報社跡) 振替五番 · 電話光園六三二番

○─○─○ 은령 ○─○─○

비듬은 머리의『녹』 두뇌활동을 둔케

진비듬, 마른비듬의 원인도 다르나 몬저 머리를 청결하자

비듬이 싸히면 머리가 가렵고 마치 머리에 열이 오른듯 것 가튼 것이 기억력이 둔해지고 모든 생각이 잘 돌지를 안습니다. 대체로 불유쾌하고 호리멍멍하야 기분이 깨끗지 못 하게 되는데 그런 때는 머리를 감거나 빗으로 비스면 다시 가뜬해 집니다. 본래 비듬에도 여러가지의 원인이 잇스니 첫재는 신진대사(新陳代謝)로 생기는것 둘째는 불결한 까닭으로 피부에 염증이 생기여 모근(毛根)이 상하야 생기는것 셋재는 얼골이 터지는 것과가티 머리가 터저 생기는 것입니다. 첫재는 병으로 볼수 업지만은 둘재 셋재는 병이라고 볼수밧게 업습니다.

그러나 염증이 잇다든지 머리가 터진다든지 하는것도 결국은 머리가 깨끗지 못한데서 인연되는것입니다 그 어떠한 원인을 물론하고 정하게감고 빗어서 머리를 깨끗이 해둘 필요가 잇습니다. 그외에도 병으로는 피부병(皮膚病) 매독(梅毒)등이 원인되는 수가잇슬뿐이아니라 노른체으이 원인되는수도 잇습니다. 모두 다 그근본원인부터 고처야 할것은 물론이지만은 머리도 깨끗이 하여야만 됩니다. 그러나 너무자조 감거나 몹시빗어서는 도리혀피부를 자극하야 잇는병을더치고 새로 딴병을 맨들게 될것입니다. 그저 한달에서 너번 감고 빗질도 살살하는데 머리감을때 오리브유를 예방을 떠러트리면 머리를 보드럽게 합니다.

×

비듬에는 마른비듬과 진비듬의 두종류가 잇습니다 마른비듬은 몬지와가티 날려가는것이요 진비듬은 축축한것이 마치 부스럼에서 떨어지는 살가죽갓습니다. 마른비듬은 피부가 너무메말러서 생기는것이니까『오리브유』『올리브유』가튼것을 발러서 영양을 주어야하고진비듬은『헤어로숀』가튼 알콜성의 것을 바르고 마찰해야만 합니다. 그 어느편의 비듬이고 잘 떼어 버려야지 그대로 두어서 나뿐 것은마찬가집니다. 보통을 햇사람은 비듬이 만히 안한대시 체사람들은 만타고합니다. 예안의버릇 기롬을 발러서 때로 되야 버리는 까닭도 잇슬것이요 엣날은 지금과 달러서 공기가 통하지못하엿든 닭도 잇슬것입니다.

×

상기가 잘 되는 분에게 비듬이 만습니다. 그것은 이만큼 처럼여 그것외의 히느라고 피부의 혈분이 고만 비듬으로 되어버린다고 볼수 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뒤집어서 비듬이 만키때문으로 상기가 잘 된다고도 생각할수 잇지 안습니까? 어떻든지 비듬을 웃읍게 여기다가는 여러가지로 재미업는 결과를 맺게 되지 안습니까?

『클레오파트라』의 화장하든법

살결을곱게하려고 ★…서투른맛사지를말라

☆조선의 겨울은 추기만 할뿐이 아니라 공기가 들지 간조하야 살스결에는 가장 조치못한 철입니다. 평상시에 비교적 주의를 하시는 분도 겨울에는 살스결이 레서 해지고 잔주름이 늘엇다가 겨울이 지난뒤까지 고만 그대로 고처지지 안는 수도 만습니다.

☆요사이 보통들 살스결을 곱게 하는데는 그저 맛사지를 하라고 권고하는데 그것도 결코 나뿐 일은 아니지 만은 서투르게 맛사지를 하다가는 도리어 잔 주름 만은 데 맨들어 놋습니다. 요컨대 문제는 무엇보담도 피가 잘 돌도록하야 피부의 영양을 충분히 하는데 잇는데로 얼골을 씻처서 혈행을 돌르듯시 에 적당한 약을 발러서 피화장을 도모하는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바르는 약이라고 하다 레의 화장품과 겸면 다르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니 화장품중에 조든별히 영양제가될 것이면 들림이 업습니다. 옛날에 클레오파트라는 나일강미테 잇는 진흙을 가저다가 잘 가공하야 얼굴에 발럿다는 전설이 잇는바 이 메미인의 화장법은 현대 과학으로 보아서도 훌륭한것 입니다.

★겨울에 얼골빛이 흐어서잘 나지 안을때는 어떠케 하십시오 『콜드』에 『오시롤』을 석거서 잘 이겨가지고 눈섭이나 이마전을 주의하야 가면서 얼골을 바른뒤 잠시 그대로 두엇다가 뜨거운물에 씻고 콜드·크림을 바릅니다.

☆눈근처와가티 잔주름이 만히 잡혓을때는 이러케 하십시요. 계란 한개를 깨트러서『콜드』에 타서 밥숫갈로 하나 거기다다시『오리브유』를 조금석거 놋코 얼골을 뜨거운 물수건으로 한참 익혀 어서 그우에 발럿다가 십오분쯤 지나서 뜨거운 물에 씻처버립니다.

☆살결이 거칠어젓을때는 이러케 하십시요.『콜드』에『오레브유』와『그리세린』을 섯거서 얼골에 바르고 그우에 뜨거운수건을 연방바꾸어 대어서 한참동안 그러케 계속 해봅니다.

☆이러케 약을 바르는것도 그 사람의 살결을 따라 다각각 차이가 잇습니다만은 대개로 일주일에 한번쯤이 조흡니다 그러면 언제나 살스결이 곱고 부드러워집니다.

륙십이세의로부인 자전거경쟁에출마

올리브랜드(미국)에서 늙은 두살을 쉬고 잇는 예순두살의 한 로파가 자전거경쟁에 뛰어 들엇다는 이야기── 그는 삼십오년전 그의 아버지가 삭고한뒤부터 자전거를 경쟁하얏스나 그 안 타기로 결정하기까지 자전거에 잇서서는 국제적인 경쟁으로 유명하얏든 이가 아니라 그가 늘어 안젓슬때 세우고간 레코드를 지금까지 깨트리는 사람이 업섯다고한다.

그는 일즉이 마킨리대통령 때에 그아버지 제주를 보기도 하고 카사스시에서 청오경주할때는 엿새동안에 청오백 마일이라는 상금을 어든일까지 잇섯다.

그래서 그가 로벨트이 되기전의 이름인 아이다·타운센드는 자전거의상으로서도 올림픽이 엇더턴다 오늘도 변이란 세월이 흘러간 오늘 그 다시 선수에 참기도 하리라는 그의 경쟁 장하거나의 그외활동도 기대되고잇다.

短篇小說 抗進記 (1)

金廷漢 作 鄭玄雄 畵

一

쇄─, 쇄─.

바께서는 창대가튼 폭우가 때 새업시 내려붓는다. 게다가 거 아닌 샛바람까지 거듭어서, 거 센 빗살은 마루바닥을 엇때려 곰팡슨 세살문을 사정업시 처 신다. 여기저기 구멍이난 문조 이가 사나운 비바람에 부대껴 쉴새업시 펄럭펄럭.

방안은 멀미가나게 우중중하 다.

『제─기, 아직 머럿나!』

무호는 기다리기가 지리한듯이 또한번 문을 치어다 본다.

터이 조금 빨고 갸름한 얼골에 생기잇게 빗나는뚜렷한 눈방울!

어스름은 여전히 물러가지안 햇다. 무호는 눈자위를 찡흐린 채 다시 돌아누으며 기지개를 쓰느라고 다리를 내던젓다. 그 리자 넓은 방바닥에서는 몬지가 풀숫솟아올으고 매케한 냄새조차 코에 몰킨다. 그와동시에 재채기가 엣취──나왓다.

『엣─기 빌어먹을것……!』

무호는 마침내 참다못해서 이러케 구두덜거리며 거적으로바글 가리운 들창을 쥐어박을듯이 이러나안든니 종아리짬을 두어번 석석 글거대다가 바뻐게 문을차고나간다.

바깥은 재법 훤─햇다. 그도 그럴것이날세 조끼 가튼면 벌서 해가 도드랄때엿스니깐. 무호는 장마에 씻겨 울어난 떼가 마치 청놈에 낀 잇기가티 맨그러운 마루끄테 나섯다. 가,모래알가튼 버쌍울이 사정업시 얼골을 쏘지는 바람에 몽이나 캐 금을 돌려 선거름에 경둥경둥 봉당을 뛰여건너 잠실 안으로 드러간다. 그리고 즉시 초롱에 불을 켜들고는 잠바들을 드려다본다.

이 더욱 대구리를 치켜들고사방으로 내홀는다. 잡바마다 올을 때가 머칠안남은 뻔얀누에들의 먹이를 찻는 무서운갈라잡이다.

『제─기 요것들도 요러케 살라고를 하는가!』

무호는 혼자서 중얼거리며 이잡바 저잡바 끄내 살펴본다

『에헹, 애헹, 애, 어떠나!』

아까부터 잠실에 군불을 때느라고, 콜록콜록 말은 기침을 텔다가 들아온 아버지의 소리다.

그러나 무호는 들아도 안보고

『편 찬흔가봐요. ──하지만이걸 다어떠케요?』

『왜──?』

『먹일것이 잇서야죠. 한두잠바도 아니고온……』

『글세……』

박첨지는 허입맛을 쭉 다신다.

『인제 한참 한밥 바들 땐데……』

아들도 떡신물린 허를 찬다.

『떠러 죽지는 안켓나?』

박첨지도 방안에 들어선다.

『왜 얼골리야 잇겟서요 원와 산놈수가 만호니깐 잘안보이지오』

『어디좀 보자구』하고 박첨지도 가까이 닥어서드니『야!이런 난리좀봐!』

『이냥 두면 나중에는 저이들끼리 서로 살아라도 뜨더먹겟서요.』

『글세……。』

박첨지는 우두머니 누에들의 씨름을 바라볼 뿐이다.

『어제보구 되려터가들어것죠?』

『그런가?──못되엇스니 응』

『잘먹어도 이잠마룽에 잘되기가 어려울텐데……이건, 이것봐요, 요러케 죽은놈이잇겟죠. 이건 아마 곰어죽엇슬게요.』

무호는 죽은놈 하나를 끄내 들고, 아버지에게 내민다.

우리차지

"눈"

밤새에 눈이하
야케 왓다。
뒷겨테온눈은
쓸지말고 그대로
두고보앗스면 조
켓다。
조고마한 검은발
자죽、검둥이란
놈의 짓이지。

(금산사람황귀동)

겨울에오는 애기들의대적 소아폐염

이병의예방과간호하는법 ③

府民病院小兒科 李聖鳳

다른논포도 이리유에 의하지만 겨자습포는 시간이 제일짧고 또하는회수도 적으므로 제일 편리합니다 효과가제일크므로 가장소용되는것입니다. 그러고 도입일이 말음한다면 가습포대용품으로 바를것이 만히 판매되어잇지만은 그효과에 대해서는 아직연구할 가치가잇다고봅니다. 페오볼습포는 겨자할수업는데서는 필요하며이습포는 두시간이나 세시간에한번씩가라주는것이 조흐며 잘때는패지하는것이 조흡니다. 그리고 이습포는 가슴이아플때 더우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에말습한 겨자습포를한뒤 흡흥이이스면 이습포를 도해주는것이 조흡니다.

다음 산소에관해서도 세상에서는 상당히 오해가잇는것가트므로 그점에대해서도 간단히 말해두랴합니다. 산소를 폐렴때에 사용하는것은 그호흡곤난을 다소완화하게하려는데 불과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대증료법(對症療法)에 지내지못하며 일부보통사람이 생각하는것과가티 산소가 폐염을 직접낫게하는 효력이잇는것은 아닙니다 실제우리의경험으로보아 좌우폐가만히 상한환자에 산소를 충분히흡입시켜도 환자는 하등의 영향이업슬뿐더러 도리어 시려하는것이보통입니다. 이것은 폐의실질이너머상햇슬때는 산소를 흡입시켜도 폐의실질이 폐염으로인해서 생긴 전출물(滲出物)로 전부충만되여 산소를 흡수할능력이업는고로 산소는 기관지나 폐면(肺面)으로부터 흡수되지안흐므로써 그러효과가 업슬것입니다

또 실제문제에이서서 산소흡입을할때 얼마나 산소가 사람의 몸안에 드러가는것은 전연알수업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겟지만 산소는 우리눈에 보이지안는까스체이므로 만히 산소를 흡입시켜도 그산소는 공기에 석겨 흡입되므로 그흡수의정도는 알수업습니다.

좀전문적으로 말슴하면 산소가 몸안에 흡수될에는 그사람의 혈액중에잇는 적혈구가 이것을취하는데 그취하는능력의 정한 한도가잇는고로 산소를만히 너어주어도 그산소가 사람의 혈구에 전부흡수될는지 의문입니다. 도입받은 산소가 공기의 중요한성분이라는 점으로보아 폐염에 산소는 신비한력약으로 흡생각하는사람도 업지안는데 실제에잇서서 산소는어떠한 경우라도 생물에 유리한것은아닙니다. 그중에는 동물시험의 성적에의하면 산소만잇는 방안에 동물을 너어두면 경련을이르켜서 얼마안해서 죽습니다. 마치이것은 우리가 과식하면 병이생기는것과 갓습니다. 어떠한 폐염때에 산소흡입에대해서도 주의하서야되며 또산소흡입을하면 병이낫는다고 생각해서는 큰잘못입니다. 그러데이즘 산소를 다소람용하는 감이잇는데 지금 말슴한점을 주의하서야 됩니다. 제생각에는 의사의 지시에의해서 다른처치와가티 적당히 산소흡입을 행하면 전을 다하기를권합니다다만 효력의불소중욕됩니다 불명료한것을더 머과신하는경계고려할필요가잇다고생각합니다

소아폐염의운명

(豫後)라는 (?)에대해서 최후에 소아폐염의 운명 즉치습해두려합니다. 소아폐염의운명을 좌우하는것은 다음세가지가 잇습니다

一、폐염의종류
二、병령의장유(長幼)
三、체력의여하(특히신생아)

일반이 어린아이가 폐염에걸리면 그의험이큽니다. 이와반대로 크루프성폐염은 위험성이적으나 그러나이병에병발하는 회충성뇌막염으로 사망하는아이가 적지안습니다. 영양이 불량한아이 인공영양아, 선천성매독, 체력이 불량한아이가 폐염에걸리면 역시위험률이큽니다. 그리고 홍역뒤끝은 백일해뒤에오는 기관지폐염도 대단히 위험합니다 끄트로 폐염환자에는 영양을 잘섭취하고 못하는데 그운명에 중대한 관계가잇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특히 일반의주의를 환기합니다.(끗)

婦人病 결혼전후에 한번식 읽으시라

먼저 말삼드리고자함은 이婦人病自宅治療書는 다른賣藥業者들과가티 賣藥만을目的하고 맨드른說明書와는 全然內容이달으다는것을알어주시기를바라나이다 從來에 一般賣藥業者들이맨든說明書에는 무슨수단으로든지 그藥을팔기에만專心專力하므로 한번팔기만하면 그後부터는아무責任이업고 또한 質問하는일에는無回答, 不親切하기짝이업스나이것은 한번藥을팔기만하면 고만이라는것입니다

그러나 이婦人病自宅治療書는 절대로그러치안습니다 이책은三十餘年間研究한經驗과名醫와學識이만흔 下山醫學博士外五大醫學博士의親切한 指導를바더서맨든책이므로 內容이充實하고正確하오니 安心하시고 婦人病환자는治療하시기를바라나이다 더욱이衛生智識이普及되지못한朝鮮婦人들은 處女時代에는부그럽고 結婚後에는 시부모슬하에서 시집사리하기에골몰하야 婦人病이 잡복된것을알면서도 여러가지사정으로治療하지못하는분과 或은모르고서治療를못하는婦人들이 누구던지알기쉽게 朝鮮말로쓴책이오니 어머님은 따님에게, 따님은어머님께, 남편은 부인에게, 형은뒤동생에게 一家族이 다가티 한번식 읽어보시고 이책에依하야病者는治療하시고 健康한婦人은衛生智識을미리잘알어두엇다가 後日에 參考하시도록하야주시기바라오며 其他모든病에對한質問에는 親切하고正當한回答을하고 또한 效果잇는藥品도紹介해드리기爲하야朝鮮人顧問部를設置해잇스니 만히利用해주시기바라나이다. 이婦人病自宅治療書의內容을대강말하면

◇月經不順의原因과治療法
◇子宮出血의原因과治療法
◇대하증의원인과치료법
◇子宮內膜炎의原因과治療法
◇子宮外膜炎의原因과治療法
◇子宮膣質炎의原因과治療法
◇상기두통의원인과치료법
◇히스테리의원인과치료법
◇女子淋疾의原因과治療法
◇手足冷症의原因과治療法
◇不感症의原因과治療法
◇不姙症의原因과治療法
◇妊娠中의조섭법

其他모든子宮病에對한치료법과 産前産後의조섭법과 婦人病相談篇이잇스니 남에게말하기 어려운女子의病을 이책에依하야 아무도몰으게 조섭을하며 적당한藥을쓰시고 全快하야 各과가튼幸福한生活을하시기바라며從來에 잘못하야 이것저것信用업는藥을服用하고 藥效는엇지못하고 病은점점重해저서 失望落膽하는분은 이책을無代進呈하오니 꼭한번 읽어보시기바라나이다

이책에婦人病良藥으로發表된『命之母』는七大醫學博士가 藥效를證明해주신婦人科專門藥입니다 또한이와가티七大醫學博士의게 藥效證明을바든藥이니만큼 高價한藥材를使用하야東洋婦人의體質에꼭맛도록製藥한 內服藥『命之母』를服用하면 얼골에화색이돗고 주름살이 퍼지고 아름다워지며 허리와손발이더워지고 淨血作用을하야 體內의毒素를全部滅殺식혀주는結果 女性의호르몬이 旺盛하야지며 대하증이근치되고 不順하던月經이順調롭게되고 當然히姙娠出産하게되는것입니다 命之母는 各地有名藥店에서販賣하오며 藥價는 六日分一圓、十二日分二圓、卅日分三圓、卅五日分五圓이고 特히本舖로 여러분의病勢를자세히 記入해서보내시면 病勢에꼭맛도록『加減命之母』를代金引換으로 보내드립니다 끄트로 注文하지안는분이라도 婦人病自宅治療書를請求하시면 無代進呈합니다

婦人病自宅治療書를無代進呈 中込하시라!

東京市京橋區人舟町三 笹岡省三藥房 振替東京五〇五〇番

調子が大切

音楽も──
運動も──
繪も……
皆な調子

お化粧だって 根本は調子です

진하게만바르는粉白粉으로는얼골이너무平坦한것가튼感이난다……

엷게바르는때는 化粧햇슬때만은 어여뿌게뵈이나즉시엽서지기쉬운것이다 머리나는가장사리、눈가장자리는엷게 빰과턱은진하게하는調子가자미잇게시리 自由로할수잇는紛白粉이아니면立體的인魅力化粧이라고는할수업다

マスター粉白粉 (마쓰타一) 千番

一番目につく唇には マスター口紅 (마스타-입술연지)

新人들의 말 (四)

生活安定과 文學의 專業 (下)

金沼葉

그것도 예술조에 文學의 眞正한 意味의 展開하고 나온 文壇을 讀하면 多少 생각해볼 點이 잇지만 이건 저런 文化와는 距離가 멀다 할만한 營利主義 雜誌에서 어떤 論說인든지을 하나 걔심하지 않을가. 自由에는 그런 讀을 商業的 誌에 내여노아 相當한 利益을 보면서 그 미천을 提供해주엇다 해도 過言이 안닐 執筆者에게

저 文人諸氏의 主體的 活動이 잇서야됨을 맷는다. 이와는 重要味가 달라질지 모르나 年前에 散三文壇이 잇서 오다가 結局 解消는 되엿지만 文藝家協會가 든것도 다시 생겨지면 조케다는 생각이 엇지안타. 現在 우리 文壇은 廣汎한 意味로의 文人會本位로한 아모런 友誼的 또는 社交的 그룹이나 團體가튼것을 가지지 못햇다. 그럼으로 文壇的 會合가튼것은 말할것도 업지만 一年이 가야 이해에 어떤 文人이 죽고, 어떤 新人이 새로 나왓다는 거라든지 어떤 優秀한 作品이 어떤 作家의 손에서 씨워젓다는 것을 文壇의 全體的 消息을 알수업다. 이런것은 新聞에 나오는 消息의 片鱗을 주 [illegible]

이처럼 沓沓하니 [illegible] 이 어데잇는가. 이땅의 文人들은 生活을 하고잇는가. 하지안흘수업다. 여기에 우리의 文人들이 本是 아닌 二重의 職業을 아니가질수 업고 따라 文學한가지에만 專心치 못하게되니 이런가운데서 偉大한 作品이 나오기를 期待하는것은 至難의 일이 아닌가. 生活이 업는곳에 文學이 잇을수 업다는것은 當然한 말과 갓다. 내 個人의 말하면 아직 作品이라고 몃개 쓴것

어떤것을 생각하야 [illegible] 그러지 아니치 못할 [illegible] …… 한편 作品을 發表하는데 도 一般보다 먼저 靈을 取하게 되는 너무나 거긔에 그러한 作品本位로 實을 따야 多少 文學的인 [illegible] 어찌 文學에 關心을 가진 사람이 三十枚만 넘어도 [illegible] 하거나 [illegible] 이 시대는 文壇의 發展을 얼마나 阻止하고잇는가. 이外에도 文壇 또는 出版 [illegible] 하고싶은 말들이 남어잇스나 [illegible] 며 쯔트로 [illegible] 우리 社會도 文人들에게 生活을 주라는 것이다. 이만한 靈이 그들에게 잇다면 어찌 이 땅의 文學이라고 날지말 아름답게 開花못하랴. 또 그래야 새로 나오는 사람들도 마음놋코 文學의 길을 걸어갈수 잇슬 것이 아닌가. (끗)

學生作品

하이네 小考 (三)

―그의 社會的 意欲과 生活―

九州帝大 李有浩

「獨逸의 政治的 狀態는 基督敎的 古代獨逸的 方面에 떠구나 條件이 有利하엿다. 格言에도 困窮은 神를 가르킨다고 말하고잇스나 當時처럼 獨逸國內에 貧窮이 甚한때는 업섯스며 그런故로 國民이 新神에 宗敎에 基督敎에 當時처럼 接近한때는 업섯다. 一般의 若者들은 宗敎가운데 慰安을 求하엿다. 이리하야 피어리스트

的權限가 神의 意味가되며 이곳에만 敎會가 [illegible] 그리고 實 神以外의 어떤 것도 나포레옹에게 反抗하여 敎會수는 업섯스며 사람들의 눈은 [illegible] 바라보지 안코는 안되게 엿다.

우리들은 조용히 나포레옹을 崇拜할수도 이서스리다. 그러나 우리들의 諸侯는 神으로써 나포레옹을 解放된것을 바라면서도 同時에 自己들의 人民의 協同力이 이러할 때 有利하다고 生覺하엿다. 사람들은 獨逸人의 同感을 눈뜨게하려고 하엿다. 하나 아니다. 優秀한 사람들까지도 獨逸의 國粹性, 獨逸人의 共通의 祖國, 基督敎的 게만적 民族의 合에 對하여 말하엿다. 그네들은 愛國心을 가지라고 命令하엿다. 웨 그러냐면 우리들은 우리의 君主의 命令하는것은 一切 行하는 故로.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愛國心이라는것을 佛蘭西에 잇서서의 그것과는 混同하여서 안된다…(略) 이에 反하여 獨逸人의 愛國心은 그들의 마음이 狹小하고 本位은 그들의 革皮와도가리 萎縮하고 寒帝中의 外國的인것이면 모두 厭惡하며 그들은 벌서 世界市民이라것도, 歐洲人이라것도 願치안코 그저 좁다란 獨逸人이 될려고 願하는데잇다……(이리하야) 獨逸의 成就한 第一의 觀念 第一 神聖한 志操(권징, 피-레, 쉐라-, 헬다-等의 世界主義思想――筆者)에 對한 貪欲하고 愚昧한 反對가 始作되엿다(中略)… 이 鬪爭(獨逸의 나포레옹 支配로부터의 離脫을 希望하는 諸侯에게 命令當한 人民의 反佛의 有形, 無形의 反抗을 말함――筆者)이 擴大하고 잇슨 時期엔 佛蘭西的 本質인 敵意를 가지고 獨逸國粹的 一切를 讚美하던 生活가운데 讚美한 一流派가 當時 浪漫派는 政府及 秘密社會의 努力과 손잡고나아가다. 그리하야 W A 舍獨逸 國民은 망셔 合 이가 가진 낡은 것을 이 나포레옹에게 反抗한것과 한 目的으로 라시누게 成하엿다. 이 派는 時代의 潮流와 합해 그 潮流에 「가슴속 음는」 浪漫派 愛國主義의 民族主義가 完全히 勝利하엿습니다. 또한 國粹的 雙眼의 人類主義者 宗敎的――浪漫派 即「浪漫派」 이 決定的으로 獨逸的으로 屈服하엿다 또 少數文學的 藝術의 浪漫派에도 不抱하고 이 精神의 有閑의 [illegible] 成立된 形而上學的 新對 聖典을 말하고 讚美하는 「[illegible]」 그

【二】七月革命과 하이네

「伊太利旅行記」에서 「나의 精神이 目的으로 치장當한 精神이 잇는지 업는지 알수업습니다. 내가 如何히 精神 나의 사랑하는 詩는 내거룩한 詩(Heiliges Spielzeug)이지오 (Heiliges Spielzeug) 嚴肅하며 禁欲的이 (Buvaii mafischeswecke) 手段에지나지 안는다. 나의 名譽 나의 詩가 세상에 반하드나 [illegible] 그러나 밝게 이 [illegible]

호면 알되겠송 나는 人類解放 戰爭의 一兵卒이 엿든故로」라고 精神하엿스며 「現代의 偉大한 使命이란 무엇이나?」 「그것은 解放이다」 ……特히 歐洲 全國民의 解放이다. 自由의 最高 … 그는 二三人의 頭上에 [illegible] 不過 [illegible] 있고 사람은 [illegible] 歐洲에 樹立된 不平等이란것은 大槪 必然的이엿스니 不可見의 條件이엇슨것이 文明의 進步의 [illegible] 리라 或은 文明의 進步때문에 나는 不可見의 [illegible] 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進步를 阻止하고 進步의 障害를 가로막고잇다. 社會的 原理와 鬪爭하고잇다.

佛蘭西人들은 第一 偉大한 그들의 同胞(?)와 等의 人類解放의 꿈을 [illegible] 하엿다. 이 革命이 自由의 希望에 불타면서 다른 知識人들이 故鄕의 火에 [illegible] 라고 「獨逸의 산드시나 [illegible]」에서 獨逸의 靑年浪漫派와 「政治的」 運動을 일으키고 時代의 關係도 [illegible] 伏하며 革命에의 希望을 [illegible] 키며 情熱에 넘치어 불상한 獨逸人을 健康한 熱情으로 부터 끄러 뜨게하려고 時時로 그들의 코끗을 뛰우지 안코는 안되엿스며」

또한 「思索의 담」에 저즌 나이트 캡을 몹쓸하게 버릴려고도 하엿다」 (이것은 獨逸의 封建的 愚昧한 專制主義와 나포레옹의 解放의 影響을 當時의 人們이 非理해 對한 合理的 認識을 버리고 主觀的 觀念과 非合理的 妄想가운데 逃避한것을 指示한것인가한다.

西京瑣信 (三)

李石薰

○

平壤에서 近代的인 商店街를 發見하려하면 그것은 當然 新街의 勤務에 도라가고만습니다. 어느 便인가하면 「新市街」보다도 朝鮮人側의 「舊市街」가 보다 殷盛합니다. 南門거리 噴水를 境界로하야 北으로 新倉里에 이르는 「新市街」로 商街로의 「매인스트리트」와 그 中間地點인 和信百貨店으로부터 西쪽으로 普通門까지 그 發展의 傾向을 不絶히 빼치고잇는 西門通, 西城里의 놀라운 繁昌等은 「新市街」를 凌駕하고 壓倒할 形勢외다. 例의 「萬壽山事件」 以來 綢緞布木界의 商勢까지 完全히 朝鮮商人側에서 獨占하야

더욱 舊市街活況을 目하게되엿다고 합니다. 그리하야 이곳에는 外來資本의 「발호」가 업고, 따라서 外來資本의 搾取的 쌍을 몰수 업는 近代的 建設을 보게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近代化되지못한 옛모습 그대로의 商街에 比하야 驚異의 눈을 목케하는 것은 이 地方人의 豐裕한 生活을 象徵하는 眞實한 住宅과 및 그 反映인 基督敎會堂의 宏壯한 建築이외다. 前者는 地方人의 近者 西五年來의 飛躍的 인 富의 增加와 農村地主들의 都會集中으로 생긴 現象이외다. 이 地方사람들은 「벌어서 生活을 즐기자」는 觀念이 무려한듯하외다.

다. 다시말하면 商業主義및 勤勞의 精神이 確固한 反面에 享樂主義的 傾向도 濃厚한 것갓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方面에 活氣를 목하고잇는 것입니다.

豪華한 住宅과 宏壯한 敎會堂의 그들에 마치 뒷골목 바나나(?) 거지의 그늘에 따리가만히 끄리듯 거지 이거 [illegible] 들은 [illegible] 「頹廢」도 어지간한것 같습니다. 每日아침저녁으로 내가 經驗하는것이매 적어도 七八名씩은 드라밀리군하는것이외다. 그들 中에는 決코 「不良者」가적은것으로 미루어 대개가 都市의 細窮民이거나 農村 貧困에서 最後로 轉落한 사람들인것을 짐작할수잇습니다.

―完―

여기까지 쓰고보니 이미 豫定頁數를 지낫습니다. 이번에는 爲先 西京의 아름다운 自然의 一部分과 및 「거리」의 「프로필」을 대강 傳하는데 끄치고 後日도 追信을 부치겟나이다. (끗)

科學

天文研究의 發達相

―그 現代的科學에 이르기까지―

④ 東京에서 金一鎭

他方 銀河系에 屬하는 天體와는 立場을 달리한 渦狀星雲이 잇스나 이는 銀河系中에는 存在치아니하고 銀河系를 離脫한 [illegible] 數文가 만흐니 그 形狀은 文字 그대로 渦狀을 하고잇스니 圓形, 楕圓形을 하고잇는것도잇다. 그 數는 頗多하야 現在 觀測한것만도 二百萬個以上으로 現今 米國에서 製作中인 二百인치 望遠鏡이 完成되면 얼마나 증가될지 未知의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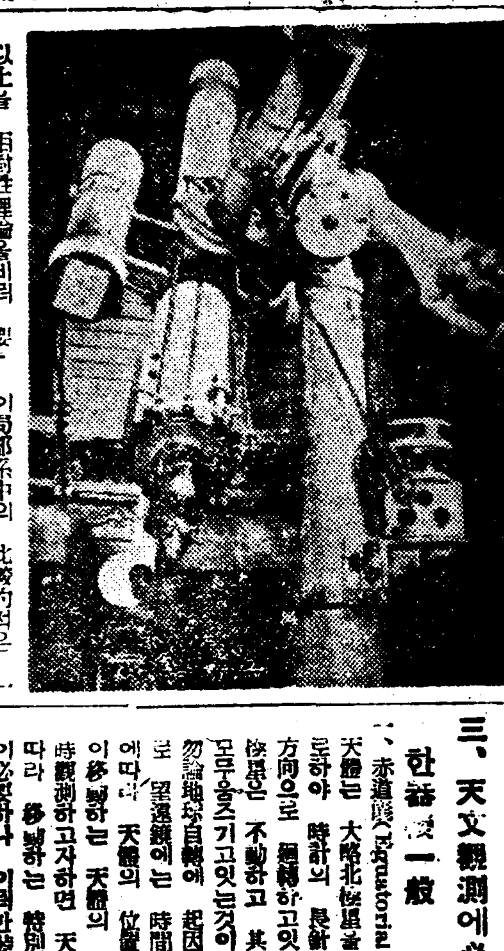
그러면 이 渦狀星雲은 어떠한 것인가! 그 距離를 알지못하얏을 當時에는 이 星雲은 우리에게 가까히 잇는것으로 銀河系의 體 [illegible] 亙據 或은

渦狀星雲은 他物質이 恒星으로 發射하는 一種의 壓力(輻射壓)에 依하야 銀河系外에 逐出當한 것이라 說明하얏스나 『항블』이 「안드로메다座大星雲及三角座星雲」의 距離測定에 成功하야 이두 星雲는 吾等으로부터 九十萬光年 相距하고잇슴을 아럿스니 이로써 宇宙는 一種의 圍繞星團 擴大되엿다. 最近에 이르러 昨年十月 『빗슨』氏의 觀測으로는 「안드로메다座大星雲」의 中心이 二億三千萬光年 떠러저잇는 大星團의 存在하고잇슴을 發表하얏다. 이 無數한 渦狀星雲中 第一有名한 「안드로메다座大星雲」 周圍의 形狀은 「大宇宙의 直徑은 精密하며 約十萬光年이란 安大한 大宇宙의 直徑이며 九億光年이라한 [illegible] 이다.

이리하야 渦狀星雲은 決코 銀河系內의 天體가아니요 銀河系와 對立한 天體임이 判明되엿다. 그럼으로 宇宙에는 銀河系及 數千萬個의 渦狀星雲이 散在하야 잇스니 此等 全部가 集合하야 一大宇宙를 構成하고잇다 할수 잇다. 이를 「島宇宙說」이라 稱한다.

그중 渦狀星雲은 大略 均等히 分布되여잇스나 또한 이 分布는 어디까지 延長되여잇는지 直接알길이 업스며 相對性理論에 依하면 其 數는 大略 一千億個程度이다.

그러하면 이 大宇宙의 直徑은 얼마나 되는것이가? 이에 對한 學者의 說은 「大宇宙의 直徑은 約 數十億光年程度」이며 大宇宙는 自閉的 宇宙로 되어잇스나 그 外側은 업스며



以上을 相對性理論을 비러 [illegible] 말하면 吾等의 宇宙는 有限이나 끗이업고 中心은 數十億光年이며 그 中에 銀河系가 存在하고 宇宙의 外側이라면은 無意味하엿이다. 이 外側이란 말이 無意味하다는 意味는 「宇宙는 有限이나 끗이업는 世界」即 어느 星雲을 보아도 반드시 周圍 四方八方에 他星雲이 存在하고 잇다는 意味이다.

이 局部系中의 比較的 적은 恒星이 太陽으로 이 周圍를 運行하는 九個의 惑星中 比較的 적은 하나가 吾等이 居住하는 地球이다. 이 局部系中의 恒星, 銀河系中의 하나로 中心에 安大한 核恒星系가 잇서 그 周圍에 直徑이 約 六千光年程度의 局部系가 運轉하고잇다.

하고 約一千萬個의 渦狀星雲이 充滿하고잇다 그 中에 各各數百億個의 恒星이 存在하고잇다.

三、天文觀測에 必要한 器具一般

一、赤道儀(Equatorial) 天體는 大略 北極星을 中心으로하야 時計의 長針과 反對方向으로 回轉하고잇스니 北極星은 不動하고 其他 天體가 모두 움즈기고잇는것이다. 이는 勿論 地球의 自轉에 起因하는 것으로 望遠鏡에는 時間의 經過에 따라 天體의 位置가 變하니 이 移動하는 天體의 一部를 長時間 觀測하고자하면 天體望遠鏡에 따라 移動하는 特殊한 裝置가 必要하나 이러한 裝置를 가진 望遠鏡을 赤道儀라 稱한다. (寫眞은 東京天文台에 設置한 大赤道儀)

球이니 이 宇宙의 偉大한 存在에 比하야 얼마나 些少한 存在인가에 驚歎함. 마지아니할것이며 또한 이 宇宙는 漸次 膨脹하야 지고잇스니 얼마나 神秘이 疑問이 同時에 이러한 觀測을 하기까지의 人類文化의 發達에도 感服함을 마지안는바이다.

口演試問 問答練習材料 (六)

―(朝鮮公立普通學校訓導)―

金秉奎

▲日本ノ主ナ山脈ヲ言ツテ見ナサイ。

▲三國、奧羽、越後、樺太、飛驒、中國、四國、筑紫、赤石、紀伊、九州、臺灣、木曾、長白山脈等

▲日本ノ主ナ火山脈ハ

▲千島、那須、富士、白山、霧島、富士火山脈等デアリマス

▲日本ノ主ナ平野ハ

▲石狩、關東、越後、濃尾、大阪、筑紫平野、朝鮮ノ南、西ノ平野

▲日本ノ農産物ノ主ナモノハ

▲米、麥、豆、甘藷、サツマイモ、茶、煙草、蔬菜、果物等

▲日本ノ主ナ鑛山ハ

▲別子、足尾、小坂、日立、佐賀

關等デス

▲日本ノ主ナ金銀銅ノ産地ハ

▲佐渡、日立、別子デアリマス

▲日本ノ主ナ石炭産地ハ

▲筑豐、三池、石狩、常磐、平壤、撫順、炭田等デス。

▲日本ノ有名ナ温泉地ヲアゲテ見ナサイ。

▲熱海(アタミ)、伊香保(イカホ)、箱根、別府、道後(ドウゴ)、草津等デアリマス。

▲東京カラ京城ヘ行クニハドノ線ヲ通リマスカ

▲東海道本線、山陽本線、關釜連絡線、京釜線、安奉線

ニヨリマス。

▲日本一ノ川ハ

▲信濃川デス。

▲日本ノ工業品ノ最モ主ナモノハ

▲生絲、綿織物、絹織物、毛織物デス。

▲日本ノ輸出品ノ主ナモノハ

▲生絲、綿織物、絹織物、人絹、陶器、木材、羊毛

▲大洋洲ノ地圖ノ中デ次ノ地名ヲ指シテ見ナサイ

▲シドニー、ニュージーランド、カンベラ、ハワイ諸島、マーシャル諸島、カロリン諸島、マリヤナ諸島

▲本大陸ノ主ナ産業ハ

▲アフリカ洲ノ地圖ヲ出シテ次ニ書イテアル所ハナゼ有名カ言ツテ見ナサイ。

カイロ市。ケープタウン。スエズ運河

▲南北アメリカ洲ノ地圖ニヨリ次ノ問ニ答ヘナサイ。

▲南米第一ノ川ノ名

▲アマゾン川デアリマス

▲南米中デ日本移民ノ一番多イ國ハ

▲ブラジル國デアリマス

▲北米第一ノ長流ノ名

▲ミシシッピ川デス

▲北米ノ主ナ産物ハ

▲小麥、綿、煙草、たうもろこし等デアリマス

▲北米ト我國トノ貿易ハ

▲北米カラ―綿、木材、鐵、機械、小麥、自動車、石油

日本カラ北米ヘ―生絲、絹織物、茶、陶磁器

▲北米ノ東部西部ヲ走ル山脈ハ

▲東部ハアパラチヤ山脈西部ハ「ロッキー」山脈デアリマス

▲南米ノ西部ヲ走ル山脈ハ

▲アンデス山脈デアリマス

紙上顧問

問 朝鮮地理를 研究하기에가장조흔 詳細한 參考書가 어떤 것이잇사옵니가

一、前記와 갓흔 參考書가 만히 업다면 特히 自然地理研究에 顯著한 參考材料는 무어이엇겟는지요 그 求入方法까지 아울러 詳細히 敎示해 주소서.

一、慶南北, 全南北, 忠南等地方

地理研究에 關한 詳細한 參考書와 材料는 어떠한것이 잇는지요

以上 讀州一地理研究生

答 以上 三問中 하나는 適切한 參考書가 업습니다 現行當該參考書中으로는 日本地理風俗大系中 朝鮮篇(上下)이 그中나을것갓고 慶南北 全南北 忠南等地方 地理研究에는 各道 道勢一覽과 各郡郡勢一覽이 參考材料로될것입니다 (調査部)

今春各學校入學規定 ④

(但詳細는 直接問議하시오)

京城第一高等普通學校

▲募集人員 約二百名
▲申請期日 自二月一日至十五日
▲試驗日字 自三月十二日
▲試驗場所 同校
▲試驗科目 國語, 算術

京城第二高等普通學校

▲募集人員 約二百名
▲申請期日 自二月一日至十五日
▲試驗日字 自三月十二日
▲試驗場所 同校
▲試驗科目 國語 算術

平壤公立高等普通學校

▲募集人員 約百五十名
▲申請期日 自二月一日至十五日
▲試驗日字 自三月十二日
▲試驗場所 同校
▲試驗科目 國語 算術

大邱公立高等普通學校

▲募集人員 約百名
▲申請期日 自二月一日至十五日
▲試驗日字 自三月十二日
▲試驗場所 同校
▲試驗科目 國語 算術

咸興公立高等普通學校

▲募集人員 約百名
▲申請期日 自二月一日至十五日
▲試驗日字 自三月十二日
▲試驗場所 同校
▲試驗科目 國語, 算術

全州公立高等普通學校

▲募集人員 約百名
▲申請期日 自二月一日至十五日
▲試驗日字 自三月十二日
▲試驗場所 同校
▲試驗科目 國語, 算術

新義州公立高等普通學校

▲募集人員 約百名
▲申請期日 自二月一日至十五日
▲試驗日字 自三月十二日
▲試驗場所 同校及近界普通學校
▲試驗科目 國語, 算術

光州公立高等普通學校

▲募集人員 約百名
▲申請期日 自二月一日至十五日
▲試驗日字 自三月十二日
▲試驗場所 同校
▲試驗科目 國語, 算術

新刊紹介

▲「三千里」 新年號(內容) 著名人物一代記 李商在先生十年後의 基督靑年의 理想, 張德秀博士辭職 第一聲, 十三道知事人物評上海市長吳鐵城과 十九路軍, 長安紳士淑女風采評 新劇運動의 新傾向 新春文藝特輯=現文壇諸作家作品 年代表, 文文藝講座, 戱曲, 創作其他 發行所 京城府鐘路二丁目九一 三千里社 振替京城二九四九番 定價三十錢 送料二錢

▲「監理會報」 第四十八號 發行所 京城府 [illegible] 基督敎朝鮮監理會總理院 振替京城一八三七二番 定價一部五錢

獨學青少年諸君!!

無學は男の恥

自宅을 學校로 不過一年 에힘안드리고 全科卒業!

立身出世의基礎는 于先中學卒業으로

最新 中學講義

他處보다도 會費가 싸고
他處보다도 알기가 쉽고
他處보다도 卒業이 빨러…

◇小學校

卒業하는 者年年數十萬名이 되는데 不幸히도 家庭形便으로 上級學校에 갈수업서 바로 實社會에 나서는 사람이나 家業을 돕는 사람이 泰山갓다. 이가튼 有爲한 靑年이 小學校以上의 工夫를 繼續치 못하고 貴重한 歲月을 虛送하는 것은 當事者만이 아니라 躍進하는 朝鮮에 羞恥다.

◇今日의

實社會에서 成功하려면 不充分하다. 複雜한 社會의 第一線에서 活躍하려면은 어떠케하든지 中學程度의 學問이 업스면 決코 大成할수 업슬뿐 아니라 將來의 生活까지도 不安하게 된다. 지금 入學하면

今年中에는 힘안드리고 卒業할수잇나

◇그러나

家庭形便으로 中學校에 通學치못하며 希望에 타면서도 煩悶하는 사람은 어떠케할가 거기에는 本校의 最新中學講義錄으로 工夫함이 第一便하나. 中學講義錄은 世上에 만키는 하나 不過一個年의 特急스피-드로 된 사리, 자미잇게 卒業할수잇는 것은 이 最新中學講義錄外에는 또 업다.

◇入會하

면은 每月 二冊식 喜喜 한 講義錄을 敎本하고 따로히 趣味가 만흔 附錄雜誌와 有益한 參考書를 一冊식 敎本함으로 每月 四冊식 配本이 되며 自宅에서 家事의 餘暇와 朝夕의 工夫로 不過一年 동안에 中學全科를 卒業할수잇나니 이러한 新式通信敎授法은 실로 一드時代에 다시업는 理想的 組織이다.

◇學科目은

다음과 갓다.

▲修身 ▲公民科 ▲國文 ▲漢文 ▲作文 ▲習字 ▲文法 ▲圖畫
▲英語 ▲英法 ▲英作文 ▲英習字 ▲歷史 ▲地理 ▲算術 ▲代數
▲幾何 ▲三角 ▲博物 ▲物理 ▲化學 ▲農業 ▲工業 ▲體育

即, 中學校正科를 全部網羅하야 排擧를만히 너엇고 講師는 斯界의 一流 平易를 第一로 모도 滋味잇고, 누구나 알기쉽게도 工夫할수잇스며 더욱이 質問이잇스면 몃번이라도 알수잇게 先生이 親切한 郵便으로 明快하게 責任回答한다

여서 本校의 最新中學講義錄外에 는 決코 업다.

◇大特典

會費는 右에 表示한 대로 他處보다 싼 會費로다 시 업는 獨學諸君을 爲한 奉仕的 廉價이 아니고 무엇이라 더욱이 獎金 英和辭典 漢和辭典의 贈呈 日曜研究科講習會等 비롯하야 他處에서 따를수 업는 各種의 大特典이다.

講義錄……二冊
參考書……一冊
機關誌……一冊
合計四冊式本附하고
其他各種
大特典付金會費不過一個月一圓

新學期開始
內容大刷新
會員大募集

이제 昭和十二年度 新學期開始함을 따라 지금 新學期 開始의 機會이며 少年은 늙기쉬우니, 後悔하지 말고 工夫는 지금부터 해야만한다

그러면 諸君은 今年에 꼭 이 宗願한 理想的 最新中學講義錄에 入會하야 將來立身成功活躍의 基礎를 싸하라

見本無料進呈

一冊 現代進學要 本規則 見本 申込次第 送呈 말고지금곳申込하여라

東京市牛込區台町

大日本通信中學校

少量으로도 特効잇는 聖魚肝油의 世界的大發明

몸보양과 병쳐로와예방에 肝油가第一 조타는것은 누구나 다아시는바이오나 재래에는 조흔肝油를선택하시드래도 만흔分量을 먹어야됨으로 그흉한냄새와 먹기에不便함은 이로말ᆞ수업것스며 며구나위장을거북하게하는수가만흠으로 조흔줄을아시면서도 服用치안는분이 만엇스나 肝油의 진국인 「하리바」가發明되야 그런폐단이 모도해결되엿습니다. 즉 하리바는 北氷洋深海속에 사는聖魚 (廿數貫이나되는큰생선) 肝油로써 보통肝油에比하야 百倍以上의濃厚한 비다민이 다量가지고잇스며 이것을 効力이 均等하도록 국제적測定單位로檢定식한후에 먹기조케 眞珠만한 糖衣小粒으로만든것이니 조곰도 위장에고장을일으키지안코 간단히 服用하며 훌륭한효과를어들수잇슴니다.

結核의 豫防과 治療에 特効

조선은 기후와 토질관계로 호흡기병에걸니기쉬우니 반듯이 「하리바」를服用하시사 예방하여주시요. 즉 사람몸에 귀중한成分비다민A・D가不足하면 감기에걸니기쉬웁고 병균에대한抵抗力이약해저서 무서운병에 걸니게되나니 미리미연에 곳처주십시요.

몸보양이되고 몸전신이 근본적으로 튼튼하게 됩니다

在來의대구肝油에比하야百倍以上의 力價을 가지고잇스며 量보다質이조흔肝油의진국일뿐만아니라 효력이 수항으로 醫藥學界에서 만흔칭찬을밧고잇사오니 일반가정에서도 간편히 치료효과를어들수잇슴으로 곳服用하여주시사 건강의행복을어더주십시요.

結核體質, 감기에걸니기쉬운분, 腺病質兒童, 몸보양 産前産後, 視力齒牙약한분

百粒…二圓五十錢 五百粒…十圓五十錢

全道藥房에서販賣합니다

東京市日本橋區本町二丁目 株式會社 田邊元三郎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三丁目 株式會社 田邊五兵衛商店

적은한알의 「하리바」는 普通肝油의 한그릇과갓흔 力價를 가지고 잇습니다

一粒肝油 ハリバ

000834

鮮滿優待

헤치마크림
ヘチマクリーム愛用者優待

大懸賞

壓倒的好評으로
締切二月末日까지延期

應募者全部當賞

下記文中세○속에文字를너면 有名한크림일흠이되는데무엇일까?

課題

強力乳化裝置コロイド・ミル
使用の超微粒子○○○クリーム

總當籤景品 (應募者全部)

後れ毛止め兼用櫛 一本宛

다시抽籤으로二重賞品贈呈

特等 一〇〇名 (左品中希望하는것一點)

一、新柄小紋銘紗 一反式
二、刺繡入友禪羽二重帶地 一本式
三、色紋銘紗 一反式
四、純毛毛布(二枚續) 一枚式
五、本ラクダシヨール 一枚式
六、防寒用コート地 一反式
七、御裁縫用具桐箱入 一式式
八、卓上ミシン 一臺式

壹等 五〇〇名樣 (左品中希望하는것一點)

1. ステーブル小紋 一反式 (百名)
2. 本銘仙 一反式 (百名)
3. 晴雨兼用絹張洋傘 一本式 (百名)
4. 革製ハンドバッグ 一個式 (百名)
5. 電氣アイロン 一個式、(百名)

貳等 二、〇〇〇名

金色パール セルロイド製 懷中化粧具 一組式

—賞品全部東京松坂屋特選—

注意 一等賞品은各派共百點限하야制限이잇슴으로同一賞品에希望者多數인때는抽籤하야賞品을맛게되거나當方에一任하시오

◆朝鮮에서 一般的으로 널리愛用하여지는 헤치마크림을 사고 그空箱裡面에 規定대로 住所氏名其他를 써서 本舖로 보내면 그림과가튼 훌륭한 賞品을 탄다
◆左의規定을읽고 곳應募하시오

應募方法

一、헤치마크림의 外箱裏面에
(헤지마코론外箱은 無効)
1、課題의答
2、이廣告를읽은新聞名
3、特等及一等商品中希望하는것各一點
4、당신의住所氏名을明記하야
(가) 近處헤치마크림販賣店으로委託하시오
(나) 또는左記宛으로直接郵送하시오 (直接郵送은封書에반듯이「鮮滿懸賞」이라朱書하야十五錢(四錢)마다三錢切手貼付하시오(郵稅不足은不受)한사람이몃장이든지應募할수잇다

東京日本橋區橫山町
天野源七商店滿鮮懸賞係

一、應募同時에抽籤券及當籤景品을보내고締切後다시嚴正抽籤한後各規定한二重賞品을보냅니다

東京 ヘチマコロン本舖
天野源七商店

15CE・A

海面十五萬坪의 第二等港을 計畫

埋立計畫은 總合五十萬坪

擴大되는 大仁川의 水陸面

【仁川】 [illegible]

水産工業兩校設置를 總督府에 要望

仁川의 發展에 副하야

【仁川】 [illegible]

月尾島西海岸에 京鐵道水産試驗場

不日着工키로 決定

【仁川】 인천수산시장에서는 [illegible]

工費十萬圓으로 府民病院擴張

病床四十餘個를 增設

[illegible]

工費百萬圓으로 臨津江橋梁架設

지난달부터 基本調査

【汶山】 [illegible]

議政府地方도 地震

【楊州】 의정부지방도 이십오일 [illegible] 강진이잇서 닷친문이 열리는등 상당한강진이 잇섯다한다

預金騙取豪遊코 飮毒

[illegible]

社會敎化講演盛況

【楊州】 양주군주최 사회교화강 [illegible]

本報永登浦支局後援 拳鬪普及大試合

卅一日演藝館서 開催

[illegible]

天然氷採取要望

[illegible]

松峴町埋立은 今春內로 竣工

賣買契約까지 進行

【仁川】 [illegible]

春窮期맛는 農村에 頻發하는 賭博犯

仁川署에서 嚴調中

【仁川】 [illegible]

前借金떼먹고 情夫와 潛跡

[illegible]

陵谷에 喜消息

來月부터 電氣架設

【陵谷】 [illegible]

올림픽氷上代表 東京 평양俱樂部 招聘氷上大會

◇日時 一月二十九日正午

◇場所 淸凉里驛前 스케이트 링크

☆出場選手—金正淵、李聖德、張祐植、崔龍振、張日弘、安重熙、尹世楨、金壯煜、朴鎭俊外在京選手數名

主催 朝鮮日報社・後援 白狗滑氷俱樂部

男性 ホルモン

エナルモン

國際的으로效力의優秀함을承認바든 에나루몬

初老・高齡期 / 靑・壯年期

國際聯盟호루몬委員パークス博士손으로 男性호루몬製劑의效力比較試驗의結果エナルモン効果는强力優秀함에顯著함을證明하얏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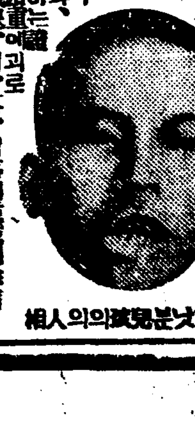
疲勞倦怠感 頭痛 能率과記憶力減退 食慾不振 精力減退 動脈硬化

男性特徵의不全 生殖器障害 性神經衰弱

武田發賣品

發賣元 武田長兵衞商店 / 關東代理店 小西新兵衞商店 / 製造元 帝國臟器製藥研究所

86—1940(O)



迅速正當한治療法

코흘리고 메는대

新聞名을記入申込患者에게無代進呈

鼻病解說

東京芝區南佐久間町二ノ二 確報堂藥品部

平壤府新陽里一六八

(西門外公設市場入口)

齒科材料器械 平壤齒科材料商會

電話一六四二番 振替京城七一二八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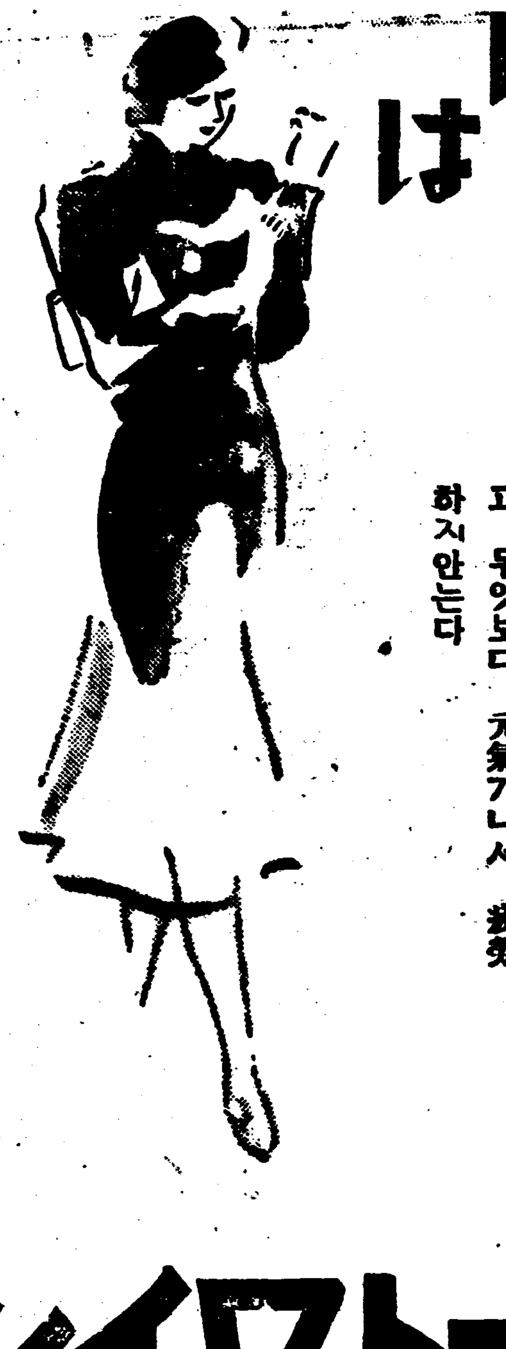
感氣・熱氣에 ハカリ印의 헤부린

ヘブリン丸

로생활을삼는분은 감기는 지체말고 헤푸린丸으로

參天堂株式會社

お外出には



赤玉ポートワイン을한두잔……… 身體를 芯底에서더웁게하면 成氣、嚴冷의慮念는업다 生生하고 血色이조호면 겨울살결거칠을막고 무엇보다 元氣가나서 疲勞하지안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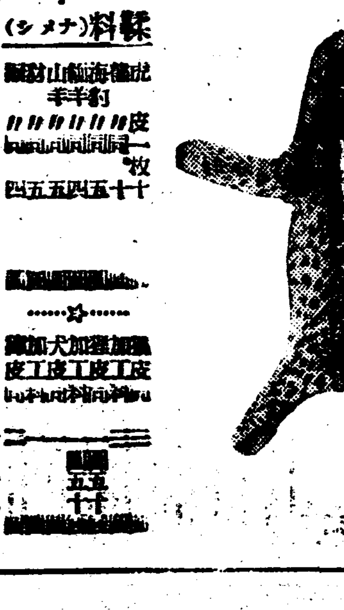
美味滋養

赤玉ポートワイン

포—도와인

洋靴一足注文에 高級HHH크림一個式無代進呈

防寒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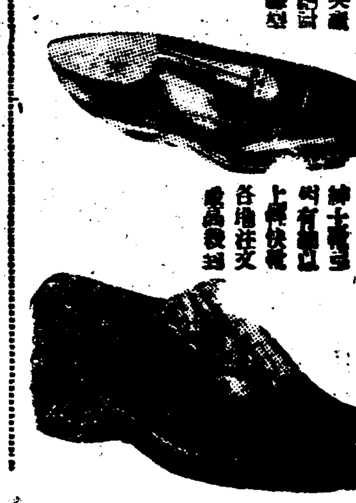
各種毛皮ナメシ及加工

◎올림픽號 스케—트

平安製革社 洋靴部 製革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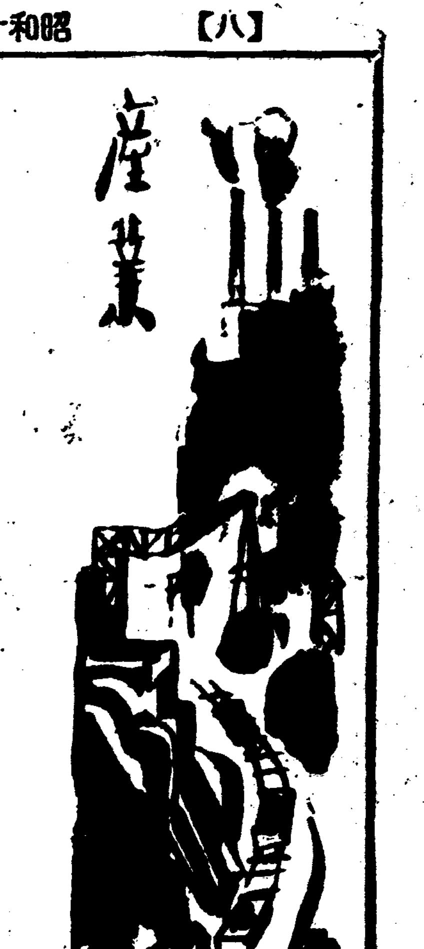
朝鮮平壤府東大院里

實로人氣最高絶頂!! 實物本位



洋靴 一足에 三圓八十錢 均一

▲陸上制覇孫南君이잡엇스니 ▲氷上制覇도우리손에



東海岸明太漁 大盛況裡에終幕

一隻最高水揚八萬餘圓의大豊

漁村은宛然明太景氣

東海岸의 明太漁業은 近年에 드믄 豊漁로 大體 今月下旬으로 最盛期가 終了될터인데 東海岸一帶 機船底曳網漁船百四十五隻의 水揚高는 二百三十萬圓을 突破할模樣으로 此中 가장 好調를 極한 第二區(元山沖으로부터 江原道沖에至함)의 水揚高는 一隻最高八萬一千圓에서 最低三萬八千圓에 達하야 東海岸一帶의 漁村은 明太魚景氣가 反映하야 非常한 活況을 呈하고잇는바 就中 今年一月一日以降 十六日까지의 一隻最高水揚高는 一萬一千圓에 達하고 價格도前年보다 二割高를 示하고잇다

咸北機船漁獲 五十六萬圓

五隻休船에不拘大增

【淸津】昨年度 明太漁業에 從事한 咸北機船底曳網의 漁獲高는 總額五十六萬餘圓에 達하야 十年度의總額에比하야 實로 三十一萬圓의 激增을 보게되얏다 漁期末까지의 數字는 相當한 增加를 보일터인데 昨年度의 漁獲은 機船五隻이 休業함에도不拘하고 例年에보지못하든 盛況을 이루어 將來 크게 期待되다한다

慶北道의米實收

二百四十一萬石

【大邱】慶北道의 十一年度産米의 實收高는 二十五日 道當局으로부터 發表되엇는데 이에依하면 作付十八萬六千八百九十六町五反에對한 實收는 二百四十一萬四千二百二十七石으로 前年의 實收二百五萬九千六百五十四石에 比하면 三十五萬四千五百八十三石의 增加이며 第二回豫想에比하면 十四萬四千七百六十三石의 減收라한다 이와가티 昨年에 잇서서는 數十年以來에처음보는 大風水害임에 不拘하고 增收된 理由는 調査方法이 改正되어 從來와 다르기때문이라한다 그럼으로 從來調査方法에依하면 실상은 大減收라한다

元山建築事業旺盛

【元山】一年동안에 元山은 얼마나컷나 이實證은 지난해동안에 元山의 이모저모에 新築 또는 改增築된 件數로차저볼수잇는바 新築이 五百十八件、修繕九十二件、改造二十九件、增築七十件、合計七百九件이라는 飛躍的數字를보엿다 이것을 前年同期에比하면 件數에잇서 二倍以上의 激增을보엿다

그리고 新築費 五萬圓以上 十五萬圓까지의 큰建物도 五棟이다 即 東銀支店、朝銀支店、三中井、國泰館、稅務署等 一流建物이다

이建築增加의 原因은 元山이 鑛業都市로부터 工業都市로 轉換하기 始作하야、큰工場의 進出에따라 自然增加되는것이라고한다

全州金組低資融通

【全州】全州金組에서는 組合員의 便益을 圖하기 爲하야 지금까지 [illegible]가업는 組合員에게는 店舖、住宅、組合으로 低資를融通하리라는데 그內容은如左하다

▲用途 店舖 住宅 新築資金
▲貸付額 [illegible]
▲利率 年六分
▲期限
가、年賦償還 十五年以內
나、月賦償還 十年以內
다、定期償還 五年以內

[illegible]錄

◇[illegible]에關한[illegible]

小生은 去年부터 [illegible]業([illegible]工業)을 經營하는바 이것이 朝鮮在來工業이니만치 硏究하야 [illegible]를 必要가잇스므로 新業에對한 參考書籍을 參考코저하오니 參考書籍을 下敎하야주시옵소서 [illegible]에對한 書籍도아울러 下敎하시옵소서 (天江[illegible] 金[illegible])

(答) 京城本町一ノ二八 大阪屋號書店取扱新光社版 最近化學工業大系第五卷定價三、八〇錢 永井新一郎著 [illegible]工業定價三、五〇錢을購讀하시오

扶安棉花共販不振

【扶安】全北扶安郡農會의 棉花共販狀況을보면 지난二十日現在 十一萬六千五十四斤 二萬二百四十一圓卅六錢으로 豫想出廻斤數에 比하야 半分에도 未及하는 狀態이며 前年共販高에 比하면 十六萬四千六百五十三斤의減少라한다 그減少의 原因은 開花期의 風水害가잇섯기때문이라한다

扶安特産"굴비"

七山海서잡어 茁浦에서製造

年産十三萬三千疋

【扶安】黃海岸에 面하야잇는 扶安地方은 各種海産物이 豐富한 中 特히 굴비(乾石首魚)는 全朝鮮에 屈指하는 特産品으로 黃海道延坪産이잇스나 質에잇서서 比가 못된다고한다 이에 數字的으로 調査한바에 依하면 扶安굴비의 原産地는 七山海로 茁浦地方에서 製造한다는데 年産數量이 十三萬三千二百키로구람 此金額이 二萬四千三十圓 集散額이 二十萬圓이라는 多大한 數字가 된다는데 이業에 從事하는 人口는 茁浦의 三十六戶 八百二十八名中 女子도 四十五名이나 된다하며 販路는 全朝鮮에 가지안는곳이 別로업다고한다 이와가티 扶安産굴비가 名聲이노픈것은 産額도 相當할뿐아니라 品質이 延平産에 比하야 優良하야 살이 두터워서 맛이잇고 거죽이 엷버서 量이 만타고한다。

務安郡植桑奬勵

百二十萬株計畫樹立

養蠶務安을目標突進

【木浦】農業恐慌과 數三年의天災地變으로 因하야 餘地업시疲弊한 今日의農村으로서는 本農만가지고는 到底히 그生活의經常을맛추어 갈수가 업슴으로이지음 務安郡에서는 農家에 副業을奬勵키로되여 植桑六個年計畫을樹立하고 이미 第一年에 十五萬株의 植桑을 完了하고 十二年度에는 錦城、淸溪、二老의 三個面에 二十萬株의 植桑을하야 昭和十七年까지에 所期의 計畫을 達成할모양인바 그때는 郡內에 百二十萬株의植桑이 잇게될것이며 따라 養蠶務安이 實現되리라고한다

産業短信

▲安東 安東運送株式會社와 安東叺合資會社는 安東物産株式會社를 解消하고 새로생겨난 安東營業株式會社와 合同할計劃으로 準備進行中이든바 二十五日에 前記 運輸會社의 總會에서 合同의 決定을하기로 되엇는데 一般株主의 贊成만잇스면 合同이 實現되리라고한다

▲江華 江華窯業株式會社는 일즉이 創立準備中이든바 지난 十五日에 出資를마치고 [illegible]를 終了하엿다는데 社長에 [illegible]氏가 就任하얏는데 同會社의 營業은 [illegible]이라한다

▲馬山 馬山은 三萬人口를 擁하고잇는 商業都市로 府勢가 날로 躍進하는 現狀인데 이에따라 今般 馬山菓子商組合親睦會에서는 共濟部를 解散하고 資本[illegible]의 菓子會社를 組織코저 지난 二十日에 府內十八業者가 모혀서 發起會를 열고 大東菓子株式會社를 組織키로 決定 方今準備中인바 來二月初旬에 創立總會를 開催한다고한다

▲店村 지난十七日 京慶線店村驛前 [illegible]旅館에서 從來의 運送店과 店村運送株式會社와의 合同總會를 開催하엿는바 定款[illegible]가잇슨後 會社名稱은 店村運輸株式會社로 定하고 役員은 社長 [illegible] 專務取締役 [illegible] 外 取締役六人監査役三人이라한다

明太王國咸南!

盛漁期中漁村은豊盛

朝鮮總生産額의九割餘를陸揚

咸興特派員 朱洛瓚

그러케도 풍성풍성하든 漁村도 지난十五日까지의 明太魚夜間作業期가 지나자마치 暴風이잘드는것처럼 閑寂하야지기를始作하얏다 最後의꼴로 突進하고잇든大小漁船들도 漸漸 그姿態를 드물게 뵈우며 大漁旗로滿船飾한 漁船이入港하자 埠頭에서 떠오르든 喊聲도듯기어렵게되얏다 事實 冬期 十一月下旬부터 一月中旬까지의 明太盛漁期의 咸南漁村은文字 그대로의 豐盛이며 겨울동안 이地方의話題가 거이모다 明太魚況에關한것이다 날새가 조곰더워도 明太魚가 變質하야 못쓰겟군! 이러다가도 눈뭇치나떠러지며 추위가 襲來하면 어허!살겟군!하는소리가 어듸를가든지 드를수잇는 人事의말이다 또한이것이 事實에잇서서 冬期中의 咸南市場 金融의 停頓圓滑의 直接 重大한 影響을 주고잇다 産額으로 보아서 咸南水産物中의 首位를 占하고잇스며 朝鮮內總生産高의 九割餘가 咸南에서 陸揚된다는것이 咸南經濟에서 이와가티 主要한役割을 하게되것임은 勿論이지만 明太魚 그自體가 朝鮮內는 勿論 멀리 日本內地、滿洲等의 市場에까지널리 需要된다는것도 亦是明太王國咸南으로하야금 活氣를띄게하는拍車가된다 實로明太魚의 豊凶은 咸南의好不況을 左右한다하야도 過言이아니며 이런點에잇서서 明太의 所産地 咸南은 天賦惠澤을 바든이 가장 만타고할것이다

이제 記者는 저무러가는 漁期를 當하야 咸南明太漁業全般에 對한 簡單한 紹介를하려한다

明太漁撈方法

明太魚는 멀리北部亞米利加州로부터 베링海 오호츠크海及 日本海中 特히 朝鮮東海岸一帶에 棲息하고잇스며 普通은 攝氏一〇度內外요 가장棲息에 適當한 水溫은 攝氏二度乃至四度라고 한다

朝鮮에잇서서 이明太魚의回游狀況은 이미 朝鮮總督府水産試驗場에서도 屢次硏究發表한바잇거니와 每年春期로부터 夏期末까지는 主로 東海岸中部以北의 遠海에棲息하고잇고 秋期를當하면 漸次 沿海로向하야 移動하며 冬期를잡어들면 所謂明太魚의 産卵期가되야 다시 淺海內灣으로 向하야 水深이五〇米에 가까운近海內灣으로와서 産卵을한다

明太魚가 産卵 할때는 거이 먹지도안코 잡자고잇슴으로 이時期를 利用하야 手繰網等이 大漁를하게되는것이다 即 盛漁期라는것이 곳 이때를 이름이다 이 産卵期는漁場에 따라서 多少 差異가잇스나 咸南道는 그盛期가 十二月初旬부터 一月中旬까지라고한다

이러한 明太魚는 果然 어떠케 잡는가

明太魚의 漁撈는 그歷史가 매우오래서 적어도 三百餘年前부터 地方人들이 小規模로 幼稚한 漁業을하야왓다고한다 그러케로 只今에 이르러서도 漁業보다는 그漁撈方法이 極히 만흔바 大槪 現今 咸南道地方에서 行하고잇는漁業에는 延繩漁業(명태주낙)刺網 帆船手繰網 機船底曳網漁業等의 四種으로 노늘수잇다

▲延繩漁業=이것은 가장 널리 行하고잇는 것으로서 比較的 小資本으로 할수잇는 말하자면 群小漁業이라고하겟다 漁船은 船幅이 約八、九尺으로 乘組員은七、八名이나되며 延繩은 굴근바줄(太繩)에다가 가느다란 노줄(細繩)을 多數히 매여가지고서 그가느다란 노줄에 낙시(釣)를 매여가지고 그낙시에다가 小魚가튼 餌料를 부처서 明太를 낙구는 原始的漁業이다 이것은明太魚의 移動에따라서 自由로 漁場을 使用할수잇는것으로서 가장 安全한 漁業이지만은 收入이 그만큼 적고 또 每年延繩을 交換하여야되며 餌料를 가추어야하는等의 不利한 點이잇다

▲底角網=底角網은最近四五年來로 갑작이퍼진 漁業으로 一名은 角網이라고한다 이것은 所謂 定置漁業으로서 明太魚가 가장 만흠직한곳에큰 角網을 잠겨노코 하로밤동안 두엇다가 새벽에 끄으러올려가지고 그물에든 明太魚를漁船에 넘기는 漁業이다 漁船은 約七名의 乘組員을 收容할수잇는것이며 資本은 約一千圓餘가든다고한다 現在咸南道內의 許可件數는 五百六十餘隻이나되며 今年과가튼 暴風이 드믄해에는 그의漁獲이 大半을 占領하엿다고하는 有利한 漁具라고한다

▲刺網漁業=咸南에서가장만히하는 漁業으로서 漁船도크며 乘組員도 七名乃至 十三名의 多數를 要하다 出漁는大槪早朝로서海岸으로부터 廿海浬乃至 三十海浬의 遠距離에 이르러서 海底에다가 一把二十五間假量되는 그물을 四十把乃至六十把식이나달리퍼노는다 明太魚는 이 그물이極히 엷고 가늘어 로그물을 보지못하고서 放卵中或은 遊泳中에 그물에 걸리는다고 한다 이漁業으로서의 漁獲高는 昭和十年度에 一、四一五、七一九圓으로서 最初에는 相當히 盛行하엿스나手繰網이나 機船底曳網가튼 大規模漁業에 出現함에 依하야 漸次 衰退하여가는 中이다

▲機船底曳網=이것은 明太漁業中에 가장 大規模의 漁業으로서 年産最高八萬圓 最低라도 二萬圓은 不下하는 有利한것이다 이것은 全鮮漁場을 六區로 노나서 咸南은第二區로되여잇스며 主로 元山西湖津近海에서 活躍한다 機船은 十九噸乃至三〇噸 即六十馬力乃至八〇馬力의發動機를 使用하야 明太魚의 集群을 調査하야 四〇乃至六〇尋의 海底에 大網을 投下하야 動力으로 適當한 時間 海底를 끄으러가지고 한번에 二、三十馱식의 明太를 漁獲한다

昭和十年度의 漁獲은一、四一五、七一九圓으로 第一位를 차지하고잇다

▲其他 帆船底曳網은 機船底曳網과 가트나 機船대신에 帆船을 使用하는것이오 또忽致網가튼것이잇스나 大槪漁獲高가 적으며 그다지 말치안타

以上 말한 여러가지 漁業으로 陸揚하는 漁獲高는 昭和十年度中(十一年度는 아직 未集計)의 漁獲高는 三、八九五、五〇四圓의巨額으로 全朝鮮總漁獲高의 九割이나 咸南이 차지하고잇다

더욱이最近 大資本家들이 大規模의 漁業을 다투어가면서 着手하게되야 群小漁民들에게는 致命的 打擊을 주고잇스나 漁獲高는 逐年 增加하고 잇스며 明太咸南의 前途는 實로 洋洋하다고할수잇다

[illegible] 漁網이輕減한新漁[illegible]

東海岸明太篇 ①

雙虹舞 【96】

方仁根 作
金奎澤 畫

가난 (二)

은명은 곽태식이라는 소리를 들을때 얼굴이 확근해지고 가슴이 두군거리엇다。

「누굴 보려오셧서요」

태식은 점점 가까히 들어왓다。 은명은 이상하게 무서운생각이 벌컥이러낫다。

「좀 말슴할게잇서서 왓는데요」하고 태식은 어물어물하엿다。 은명은 분하고 불쾌한생각이치밀어

「뭐 말슴할것도업슬터이고 들을필요도업습니다」하고 은명은 문을 콱 다덧다。 은명의 어머니는

「아니 누군데그러니」하고 물엇다。

「뭘 그까짓것아실것업서요」

「아니그래도 누가왓는데 그러케하면쓰나」하고 문을 열고내다보며

「거 누구시요」하고말하니 머주하니섯든 태식은반가운듯 토방위로 한거름밧삭다어서며

「저- 태식이올시다 불가불뵙고 말슴할게잇서서왓습니다」하고 공손하게 말하엿다。 은명의 어머니는 태식이란말에 미웁고도 반가워

「무슨말요 나도 할말이만히잇소」하고 대들엇다。 어찌되엿든단과 분푸리라도 실컷할작정이엇다。 늘 태식을 만나서 시원스럽게 푸념이라도하고 시픈것을 만날수가업서서 못한것이엇다。

『저-남이듯는데 박게서 이야기할수도업고 도따나게서해 함께 조용히 이야기할데이잇는데요 자기방으로 들어갈수는 업슬가요」

은명의어머니는 태식을 놓치지아니하려는 욕심에

「네 그럼 들어오시오」하고말하니 태식은 [illegible]한듯이 [illegible] 방으로 들어와안젓다。 은명은기가막히지마는 끌어낼수도업고해서 [illegible] 돌아안저버렷다。 태식은 [illegible] 은명의 뒷태도를 보다가 [illegible] 그의어머니에게 돌리며

「참 여러가지로 미안하고 죄송하얏습니다 [illegible]」하고 절을 꿉벅하엿다。 은명의어머니는 목구멍까지 치미는 말을 [illegible] 쏭으며

「그러지안허도 나도 당신을좀 보려고 하엿소」하고 쏘우려는 어조로 말하엿다。

「아니저도 벌서와서뵙고 사과말슴이라도 드리라고 한것인데 그동안 제가친이 변환이 잇서서 못왓습니다」

은명의 어머니는 그런말을은귓등으로 듯고

「그래 당신네 집과우리집의 세교로보든지 도인정으로보든지 그래 아무려 돈도 소중하지만 우리를 그집에서 내쫏는법이어잇단말요 우리가 순순히 떼기고 나왓지만 [illegible] 덤이라도 잡젓데 그때세상에그럼법이 잇단말요 응?」하고가슴에 매처든 원통한것을 뱉어내엇다。 은명은 돌아안즈며

「어머니! 에 글세 그런말슴을하서요 그만두서요!」하고 태식에 향하여

「미안합니다만은 가십시요!」하고 날카롭게 소리첫다。 태식은 은명과말하는것이 처음이라 흥분되고 재미잇다는듯이

「아니 그러케 흥분되실게 아닙니다 제게는 또 상당한 사정도 잇스니까 말슴이나 들어보시지요」하고 말하엿다。 은명은 성을벌컥내며

「아무말슴도 듯기실습니다 가세요!」하엿다。

「물론 참 분하게도 생각하실터이고 억울하게도 생각하실것입니다 잘못된 말슴은 인제와서 한들 소용잇슴니까만은 제딴은 좀 의론할일이 잇서서왓사옵니다」

「의론이고 무어고 다듯기실혓요!」

은명의 어머니는 담배대를잿터리에 탁탁털며

「그래 의론이라니 무슨의론이만하랄요」하고 물엇다。 태식은 술이 약간취한모양인지 무안함인지 붉은얼굴을 길다란 손으로 쓰다듬으며

「원래 이러케 되것이다 제탓이아니오 제지금안해의 의견입니다。 저야 참말로 생각하든지 그러케 몰인정한처사야 하겟습니까。 돈이 아무리귀하기로털번이나 한노릇입니까。 참사 의조처해서 그걸홀려드리든지 돈을얼마랑감해드리든지 하려고하엿는데 원 무슨거래가 서로잇서야 이야기나해보지요 인제말슴이지 저도퍽서운하게생각하고 감정이 낫습니다。 그러나 일이이러케되고대에서 이런집에오셔서 고생하시는것을보니 여간마음에 걸리고후회가 나는게아닙니다。 참 입에발린말이아니라 이아풀 지날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죄송스러워 견델수가업섯습니다。 그래서 제가오늘 다시의론하려고 한것은 다른것이아니오라…」하고능청스럽고도 정답게 말을 끄내엇다。

거품일듯健康을기르는
牛乳石鹼
本舖 大阪 共進舍石鹼株式會社

令孃들의—
어는手足
거치는살결
이크림과가티거품이일듯健康하게保護하시오
이제더욱살결의健康과美容을爲하야牛乳비누를常用하시오
NO. S14

群仙
群仙邱邱漁場
金裕禎 金炳現 姜秉祖 金景炎 仁鳳

咸鏡線群仙驛前
맛조흔群仙酒釀造元
群仙釀造場
都明廷 徐洙觀

食料雜貨 二元商店

躍進! 業務擴張

群仙官公署園

群仙 穀物商組合

咸鏡線群仙驛前 ㊥商友聯合運輸組

內外雜貨 李桂晦商店

목욕집 青龍湯 主 [illegible]

元壽堂大藥房

長城

湖南線長城驛前
大興旅館
主 李喜旲
取次電話二一番

鎭川

鎭川愛人病院
職員一同

朝鮮料理 迎樂館
妓生黃錦仙、李淑子、金錦蘭 尹錦紅、朴玉先

禮山

禮山市
帝國ミシン株式會社
忠南總代理店
主 李泰敬

禮山郡大興市 尹文榮

江景

論山郡豆溪郵便所長
崔鍾仁

平壤

平壤府鉉[illegible]里
絹織布木商 鄭基贊商店
電話壹參貳四番

仁川

仁川府龍雲町一五三
永福質屋
主 金性煥

成歡

成歡牛肉 合資會社

烏致院

烏致院
濟衆醫院
院長 李殷